

금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세미나

錦山人參の国家重要農業遺産指定のためのセミナー

- 일시 : 2014년 9월 19일(금) 13:00
-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주최 : 금산군 · 충남발전연구원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 후원 : 한국농어촌유산학회



금산 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현지 견학

□ 목적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금산 인삼의 농업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4년 9월 19일(금) 13:00~18:00
- 장소: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금산군 인삼 재배지
- 주최: 금산군&충남발전연구원
- 주관: 충남발전연구원
- 후원: 한국농어촌유산학회

□ 참석자

- 충남발전연구원 강현수 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민동명 사무관(지역개발과)
- 충청남도 양장목 팀장(농업정책과)
- 금산군 김태진 팀장(글로벌마케팅팀)
-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윤원근 회장(협성대), 김태연 교수(단국대), 이정환 박사(농어촌연구원)
- 중부대 강신정 교수, 금산문화원 안용산 사무국장

□ 주요 내용

- 금산 인삼의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조사 결과 보고
- 금산 인삼의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논의
- 금산 인삼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위한 길 모색

□ 세부 일정

I. 세미나(진행: 유학열 박사, 일본어 통역: 김기홍 박사)

시 간	내 용	담당
12:50~13:00 (10분)	등 록	충발연 연구진
13:00~13:10 (10분)	참석자 소개 및 세미나 취지 설명	유학열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13:10~13:20 (10분)	인사말	강현수 원장 (충남발전연구원) 민동명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13:20~13:35 (15분)	금산 인삼농업의 특징과 가치	강신정 교수(중부대)
13:35~13:50 (15분)	인삼과 금산지역의 문화	안용산 사무국장(금산문화원)
13:50~14:10 (20분)	금산 인삼의 농업유산적 가치	조영재 박사(충남발전연구원)
14:10~14:20 (10분)	휴식	
14:20~15:20 (60분)	금산 인삼의 농업유산적 가치와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	좌장: 윤원근 교수(협성대) Nagata, Akira 교수(유엔대학) 김태연 교수(단국대) 이인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김태진 팀장(금산군) 주제발표자
15:20~15:30 (10분)	종합정리&폐회	유학열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II. 현지 견학

15:30~16:30 이동: 연구원 ⇒ 금산

16:30~18:00 현지 견학: 금산인삼관, 인삼재배지 등

18:00~19:00 저녁 식사

19:00~20:00 금산인삼엑스포 개막식 참석

錦山郡人參の農業遺産指定のための専門家セミナー&現地見学

- 日時：2014年9月19日（金）13：00～18：00
- 場所：忠南発展研究院 会議室、錦山郡人參栽培地など
- 主催：錦山郡、忠南発展研究院
- 後援：韓国農魚村遺産学会

<スケジュール>

I。セミナー

時間	内容	担当
13：00～13：10	参加者紹介、セミナー趣旨説明	劉鶴烈 博士（忠南発展研究院）
13：10～13：20	ご挨拶	Kang, Hyun-Soo院長（忠南発展研究院） Min, Dong-Meon事務官（農林畜産食品部）
13：20～13：35	錦山郡における人參農業の特徴	Kang, Sin-Jeong教授（中部大）
13：35～13：50	人參と錦山郡地域の文化	Ann, Yong-San事務局長（錦山文化院）
13：50～14：10	錦山郡人參の農業遺産的価値	Cho, Young-Jae 博士（忠南発展研究院）
14：10～14：20	休憩	
14：20～15：20	錦山郡人參の農業遺産的価値と農業遺産指定のための推進方向について 議論	永田明 学術部長（United Nations University） Youn, Won-Keun教授（協成大）外3～4名
15：20～15：30	まとめ	劉鶴烈 博士（忠南発展研究院）

II。現地見学

- 15：30→16：30：移動
- 16：30→18：00：人參栽培地など現地見学
- 18：00→19：00：夕食
- 19：00→20：00：錦山人參祭り開幕式参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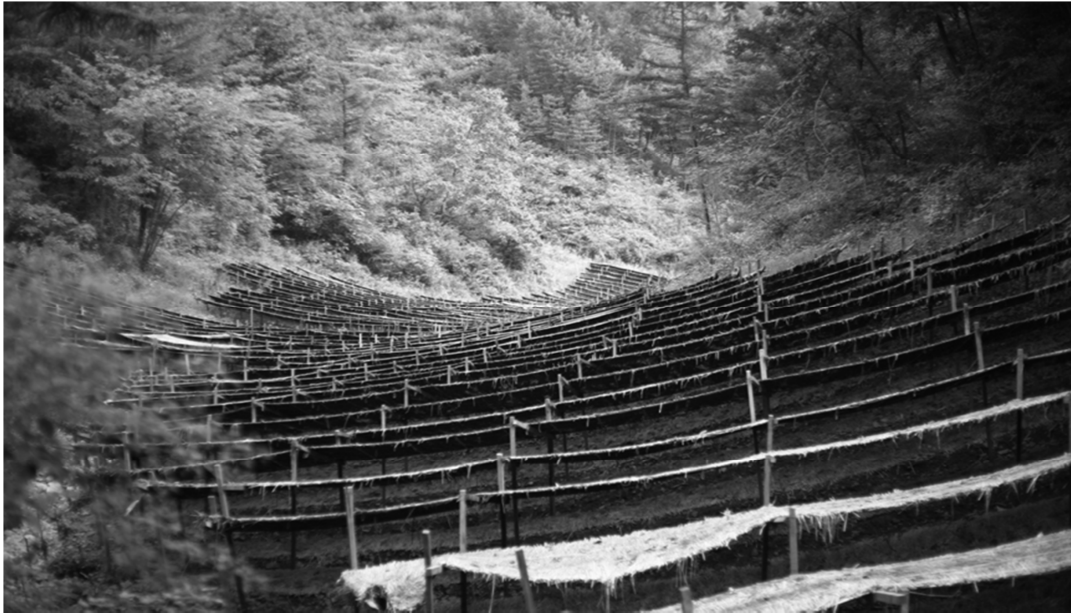
발표자료①

금산 인삼농업의 특징과 가치

강 신 정 교수
(중부대학교)

본 원고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필요에 의해 본 원고를 인용할 경우, 저자와 사전에 협의 바랍니다.

금산인삼 전통농업 특징과 가치



중부대학교 교수 강신정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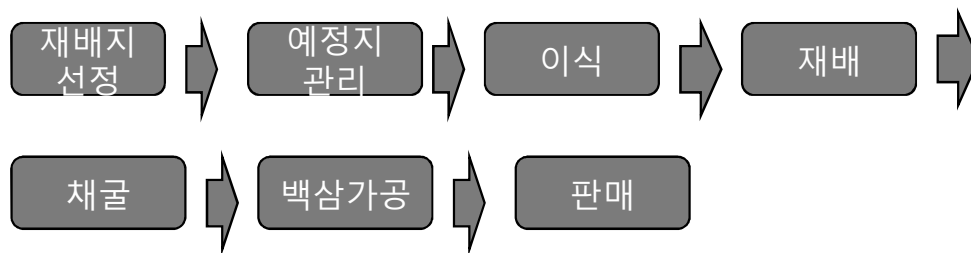
1. 금산인삼 전통농업의 특징
 - (1) 재배지선정의 특징
 - (2) 예정지관리의 특징
 - (3) 재배과정의 특징
 - (4) 백삼 가공과정의 특징
2. 금산인삼 전통농업의 가치
 - (1) 전통농업과 GAP농업의 비교
 - (2) 금산인삼 전통농업의 재평가

1. 금산인삼 전통농업의 특징

*인삼의 생육특성

- 반음지성 다년생 식물
- 배수가 양호한 토양 선호
- 서늘한 생육온도선호: 하절기 최적온도 18-23℃

*금산전통인삼작부체계



(1) 재배지 선정의 특징

-선조들이 재배지 선정 시 고려 한 사항

- 자연재해 안전지역: 4-6년간 장기간 재배가 가능한 위치
- 유기질이 풍부한 지역: 재배기간 중 시비를 할 수 없음
- 청정지역: 병해충 감염과 유해물 오염원으로 부터 격리된 지역

-인삼재배의 성공조건: 재배환경이 친인삼적인 최적 입지 선정이 관건

-문헌과 구전에 나타나는 친인삼적 최적지

•고구려인 인삼노래: 名醫別錄 本草紅集註

三柯五葉 背陽同陰 欲來求我 柯樹相尋

줄기는 셋이고 잎은 다섯 갈래네 해를 등지고 그늘을 같이 하나니
인삼이 나를 찾아 온다면 잎 큰 나무 아래서 만나리라

•새(꿩)가 깃을 드는 곳:

북향 또는 동북향북향의 아침해가 잘 드는 넓은 잎을 가진 높은 나무 숲
(산삼 발견지역과 유사한 지역)

(1) 재배지 선정의 특징

-최적 재배지 조건

- 서쪽 및 남서쪽에 주봉이 있는 산의 북쪽 또는 동북쪽의 산 기슭 경사지 토양
(아침: 직접조사, 10시 이후 :간접조사 지역)
- 배수가 잘되고 유효수분 보유력이 높은 사양토-양토-식양토
- 무기질비료함량이 적은 미경작지: 미경작, 비오염지
(인삼의 영양생장을 느리게 하여 다년생 인삼 생육에 적합)
- 일교차가 높고 서늘한 지역: 여름의 한낮의 온도 18-25℃ 유지
(약성이 높은 인삼생산과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 민가와 떨어진 지역: 전염병 등 감염 위험성 낮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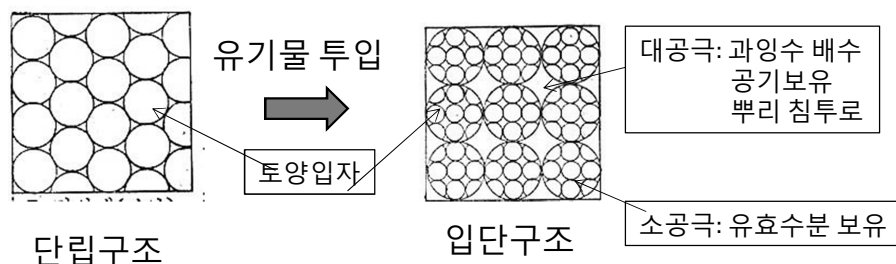
-최적지: 대둔산, 진악산의 북향 또는 동북향 산기슭 경사지 토양

(2) 예정지 관리의 특징

-예정지 관리: 2년간 시행

-시행방법: 섬유질이 많은 활엽수 잎 및 줄기(4.5ton/10a)를 넣고 30cm깊이로 갈아 주기를 15-20회 실시함

- 충분한 토양 유기물을 축적하여 4년 이상의 영양분을 보유
- 섬유질이 많은 청초를 투입: 토양을 입단화를 조장
보수력과 통기성을 높여 뿌리생장에 유리한 환경 조성
- 토양 병해충을 태양빛으로 살균 및 살충



-예정지 관리법: 고도의 과학적 가치가 인정 됨

(3)재배과정의 특징

- 이식: 1년 키운 묘삼을 본포에 이식
- 재배: 3년간 재배
- 채굴: 4년 근으로 채굴

- 지주목 : 무주지역의 3-4년생 소나무 자원 풍부
- 해가림막: 대둔산지역의 조릿대 자원 풍부
- 잡초제거 및 포장관리: 수작업, 무농약 재배

- 외부오염 엄격차단: 병해충 감염 차단 및 안전관리
외부인 포장 출입 및 접근엄금
상가방문 후 포장출입 자제
심신(心身)이 정결한 상태에서 포장출입



중국 인삼재배포장



전통재배포재현
GAP 재배포장

고사의 재해석:
하늘의 인삼재배규범 준수

(4)백삼 가공과정의 특징

-박피:

- 대나무칼 사용: 인삼의 성분과 화학반응 방지
- 박피: 건조 용이,

-곡삼화

- 중미 나 미삼의 분절 예방
- 포장 및 계량 용이



직삼



곡삼

2. 금산인삼 전통농업의 가치

(1) 전통농업과 GAP농업의 비교

	전통농업	GAP농업
포장선정	청정지역 (미경작 산간토양)	청정지역 (논, 밭의 경작지 포함)
농약사용	미사용	최적량 지정농약 사용
추비사용	미사용	미생물비료 등 사용
경작자 위생관리	정신 과 신체	신체
수확량	다량	소량(저항력이 강한 인삼만 수확가능)
관리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神(God)
효능	낮다(?)	높다(?)

GAP(Good Agricultural Process, 우수농산물관리규범)

(2) 금산인삼 전통농업의 재평가

-전통인삼재배법

- GAP보다 상위의 친환경 농법임
- 금산인삼 전통농업의 미신적 요소(고사, 심신의 정결문제 등):
미신적 치부에서 재배 안전위생규범으로 재평가 되어야 함

-전통금산인삼의 약효

- 전통금산인삼은 4년간 자연재해 및 병해충으로 부터 살아 남은 것
- 생명력이 강한 인삼
- 소량으로도 높은 약리 효과가 예상됨(산삼과 유사)

-전통농업은

- 서구에서 도입한 현대농업GAP(Good Agricultural Process)보다 앞선 Super GAP(God Agricultural Process)로 재 평가 되어야 하며
- 이러한 전통농업으로 고급인삼의 생산 가능성이 있음

(2)금산인삼 전통농업의 재평가

-중국고의서에 기록된 금산인삼의 기록

- 본초몽전(本草蒙筌): 白濟蓯 白堅且圓 名白條蓯 俗名 芋角蓯
(백제삼은 희고 단단하면서 둥근데 이를 백조삼이라 하며
속명으로 간각삼이라 한다)
- 명의 별록(名醫別錄): 人蓯 乃重百濟者 形細而堅白
(인삼은 백제의 것을 중하게 치며, 형체가 가늘고 단단하며 희다))
- 인삼의 별칭: 神草(명의별록), 土精(명의별록), 活人草(述異記)

-고대 중국: 고려인삼은 불로장생의 영약이며 백제삼을 최상으로 간주



(2)금산인삼 전통농업의 재평가

-고대 중국 고의서의 기록의 재평가

- 고대 중국: 면역력을 강화가 불로장생 및 질병 치유에 가장 중요한 수단
- 백제삼: 면역력 증진에 가장 좋은 약제
- 백제삼 효능: 어려운 환경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약효가 뛰어 났을 것으로 추정
- 따라서, 고대에는 무병장수에는 인삼이 최고였을 것임

-전통적 재배법 재조명:

- 전통금산인삼: 고급제품으로 재평가 될 시기 도래
- 전통금산인삼: 소량, 고품질 인삼으로 전략적 시도 필요.





발표자료②

인삼과 금산지역의 문화

안 용 산 사무국장
(금산문화원)

본 원고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필요에 의해 본 원고를 인용할 경우, 저자와 사전에 협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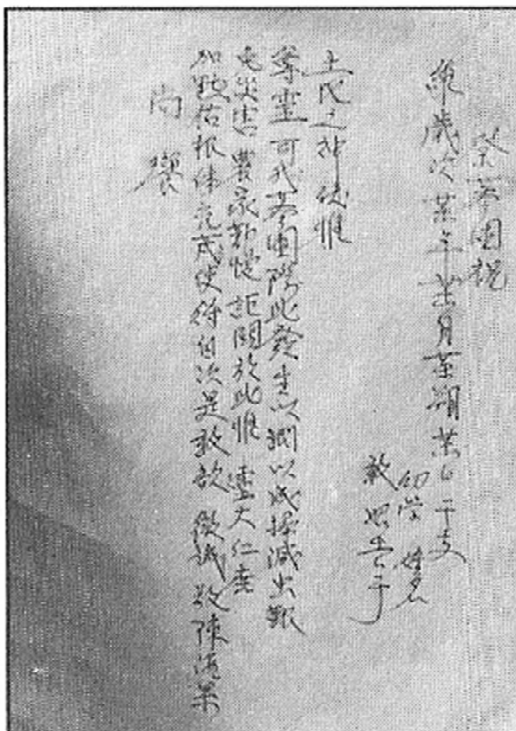
인삼과 금산지역의 문화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안용산

1. 인삼과 민속

금산에서 인삼은 작물이 아니라 산신령이 점지한 영물(靈物)이었다. 지금처럼 인삼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인삼은 사람의 공력만이 아니라 산신이 점지해주는 사람 이상인 모심의 대상이었다.

모심의 대상이었기에 삼장밭을 다 꾸미고는 삼장제를 산신제로 모셨고. 삼장제를 지낼 때 산신령의 수호자인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지켜보거나 다녀가면 인삼이 잘 자란다고 믿었다. 그런가하면 굿은 일을 당하거나 본 사람은 본인은 물론 남들도 삼장밭에 가지를 않았다. 또한 삼장밭 주인이 죽으면 삼장포에 부고를 내어 주인의 죽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삼장제 축문



삼장포 부고

삼장제는 지난 해 가을 갈잎을 넣어 새로 만든 인삼밭에서 그 이듬해 봄에 지낸다. 삼을 심은 후 삼장밭로 삼장을 꾸미고 난 다음 청소를 하고 잎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인삼의 싹이 트는 것을 입노라고 하는데 입노는 한자로 입뇌(立腦)인 것을 말한다. 즉 머리를 세운다는 뜻이다. 인삼의 싹이 트는 부분을 뇌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인삼을 사람 이상의 존재로 여겨 부여한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입노를 할 때 쫓이면 보통 음력 3월 말경인데 각 집에서는 삼장고사를 지낼 준비를 한다. 입노한다고 해서 아무 날이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기복덕을 보아 날을 잡는다. 날이 정해지면 제주는 주인이 하는데 여자는 제주가 될 수 없다. 제주는 제일 3일 전부터 문 앞에 문종이, 숯, 술가지 등을 꽂은 금줄을 치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원래 굿은 일을 본 사람이면 으레 인삼포에 가지도 않았고 설령 남의 일을 할지라도 그 달을 넘기고 일을 하였다. 삼장제 역시 그 사이 굿은 일이 생기면 달을 넘겨 날을 새로 받는다.

날을 받은 3일이 무사히 지나면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린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쫓이면 정성껏 준비한 제물로 돼지머리, 쌀, 삼사실과 등을 차려 삼장으로 간다. 제를 지내는 곳은 삼장 가운데 가장 긴 고랑으로 깨끗한 돌을 놓거나 짚을 추려 만든 제단에 진설을 한다.

진설이 끝나면 불을 밝힌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여 문종이로 만든 심지를 3발로 세워 놓는다. 그리고 향불을 사른 다음 두 번 절을 한다. 절을 한 후 삼장통에 3회에 걸쳐 붓는다. 술잔을 올린 후 축원을 하거나 고축을 하는데 축문이 있는 경우 축문을 읽는다. 고축이 끝나면 재배를 한 후 소지를 올린다. 소지덕담은 주로 무만큼 크게 해달라고 축원을 한다. 소지가 끝나면 재배를 하고 음복을 한 다음 집으로 돌아온다.

삼장제를 지낼 때 호랑이가 바라보거나 그 다음날 호랑이 발자국이 있으면 삼이 대단히 잘된다고 사람들은 믿었다고 한다.

2. 인삼생산 과정

1) 인삼밭 선정

인삼을 넣을 밭은 흔히 일년을 묵힌다. 인삼을 심으려면 무엇보다 밭을 잘 선정하여야 한다. 밭의 토양은 질밭이라고 하는, 모래가 없으며 황토흙이 있는 밭이 좋다고 하며 인삼이 반음반양의 생육 특성에 따라 북쪽이 터져 있

는 음지밭을 봄부터 묵혀 이듬해 봄에 인삼을 심는다.

2) 인삼밭 거름

아주 오래전에는 인삼밭에 거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시근이라 하여 종삼을 한 번 이식하던가 아니면 직과라 하여 아예 이식을 않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봄에 새밭에 심고 늦가을에 캐서 집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이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라고 한다. 이때에는 인삼을 넣을 밭에 땅도토리나무라 하여 가랑잎 또는 갈잎이라 부르는 풀을 사용하였다. 인삼에는 이 풀이 제일이라 한다. 근래에 와서는 콩이나 닭똥 거름을 인삼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갈이

인삼을 넣을 밭은 갈어야 하는데 많이 갈면 갈수록 좋다고 한다. 이것은 4-5일에 넣은 풀을 썰지 않고 그대로 갈았는데 보통 5일에 한번씩 갈았다고 한다. 이것은 양근이라 하여 햇빛에 태우기 위하여 자주 갈았고 이것도 이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였다고 한다.

4) 삼장통치기

이듬해 심을 삼밭을 땅이 얼기 전인 초가을에 삼장통을 춘다. 가을에 통을 쪼야 겨우내 얼었다 풀어졌다 하며 얼부푸러져 흙살이 고와진다. 삼장통은 삼을 심는 높은 통을 원통이라 하고 사람이 다니는 곳을 질통이라 하여 구분하여 통을 주었다. 삼장통을 출 때는 골이 신을간을 향하도록 쇠로 좌향을 잡아 통대가 높은 쪽이 북향을 향하도록 하였다.

5) 삼씨놓기(삼심기)

종삼을 심기 위하여 봄부터 묵히고 가다리친 삼밭에 가을이면 삼종자를 놓아야 한다. 먼저 통을 추고 본밭의 흙 위에 모래가 섞인 색별흙을 약 1cm 펴 그 위에다 종자판으로 누른다. 그러면 구멍이 총총히 나는데 그 구멍에다 일일이 손으로 구멍 하나에 씨 하나를 넣는다. 인삼씨를 다 넣었으면 다시 그 위에다 색별을 펴고 겨울을 나기 위하여 풀로 삼장통의 원통을 덮는다.

요사이에는 종자판 대신 기계를 사용하여 통을 추고 씨도 뿌린다.

6) 가개꾸미기

봄이 되면 ‘삼장꾸민다’라 부르는 ‘가개’를 꾸며야 한다. 가개는 입묘하기 전에 통대로 앞뒤로 세우고 철사를 늘인다. 철사를 사용하기 전에는 처음에 장목, 대나무를 사용했으며, 이것도 없을 때는 다래넝쿨을 사용하였다. 철사를 늘인 다음 그 위에다 호밀대나 새때기로 만든 밭을 치고 다시 그 위에다 덧밭을 친 다음 짚으로 철사와 밭을 동여맨다. 동여매는 것도 예전에는 칩넝쿨을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천으로 만든 끈으로 맨다. 밭도 차광막이라 하는 임조로 만든 밭을 사용하고 있다. 호밀대로 밭로 사용하기 전에는 자작나무과의 물박달나무, 오리나무, 개암나무 등 북방계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덮다가 1920대 쯤부터 호밀대 밭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삼장을 다 꾸몄으면 청소를 하고 삼장제를 지내고 그동안 일을 한 일꾼들을 불러 같이 제물을 나눠 먹었다.

7) 삼장 관리하기

삼장제도 지내고 여름철이면 풀도 매고 소독을 한다. 소독을 하기 시작한 것은 6.25부터라고 한다. 가을이 되면 삼장에 풀을 하여 덮는다. 삼이 겨울을 나자면 삼장풀로 덮고 겨울에 내리는 눈 때문에 밭을 내려야 한다. 밭을 한쪽에 놓았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꾸민다.

8) 삼밭집기

꽃이 피서 딸(인삼종자)이 맺기 전에 집어야 한다. 이것은 딸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여 뿌리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한다. 주로 이것은 3년근을 집는데 더러는 2년근도 딸이 맺으면 집으며 4년근도 종자를 받을 것만 제외하고 집는다. 종자로 삼을 딸은 빨갭게 익었을 때 따낸다.

9) 인삼캐기

인삼은 대서전에 캐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서깎기도 했다. 단오만 지나면 캐 수가 있지만 대서에 캐어야 삼의 약효가 좋고 말리기도 좋다. 삼을 캐는 도구는 호미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곡괭이도 사용하였다. 요새는 캐는 시기도 일정하지 않는데 그것은 수삼으로 넘기고 저장고가 있기 때문이다.

10) 인삼깎기

주인집으로 가져온 삼은 큰 것, 작은 것 그리고 아주 작은 것으로 골라 아주 작은 것은 기보시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음 새벽 4-5시에 인삼을 깎을 사람에게 인삼 100개를 한몫이라고 하여 나눠준다. 인삼을 깎을 사람은 먼저 뿌리를 떼고 쉰 다음 집으로 가져가서 깎는다. 깎는 도구는 대나무칼과 베로 만든 수건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깎는다. 이때 중미를 너무 떼었다고 가끔 주인하고 큰소리가 오고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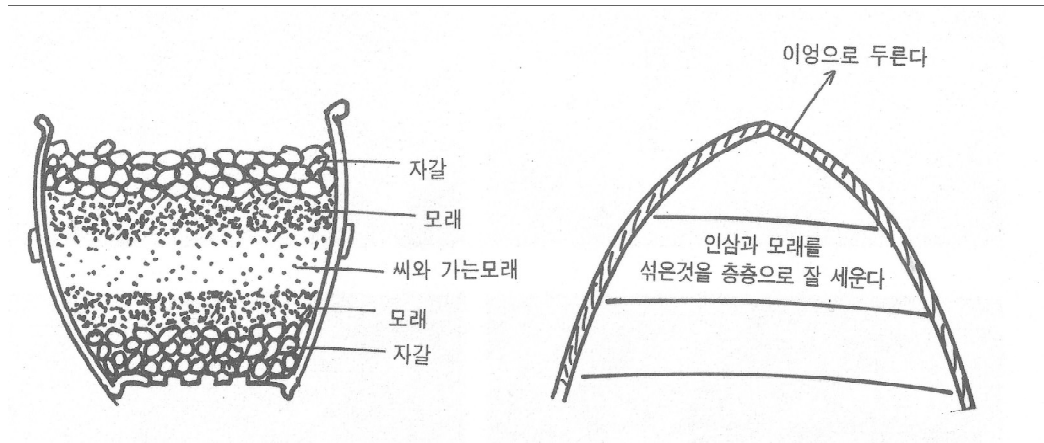
11) 인삼접기

인삼은 햇빛에 말리며 대서에는 하루만 말리면 되었는데 밤에는 방다림이라 하여 방에다 말린 다음 아침에 작은 것부터 골라 물질을 하고 물기를 말린다, 그리고 몸통이 고우라고 국수판 같은 송판에 비벼 왕골속으로 만든 끈으로 접은 삼을 동여맨 후 이가 안들어갈 정도로 말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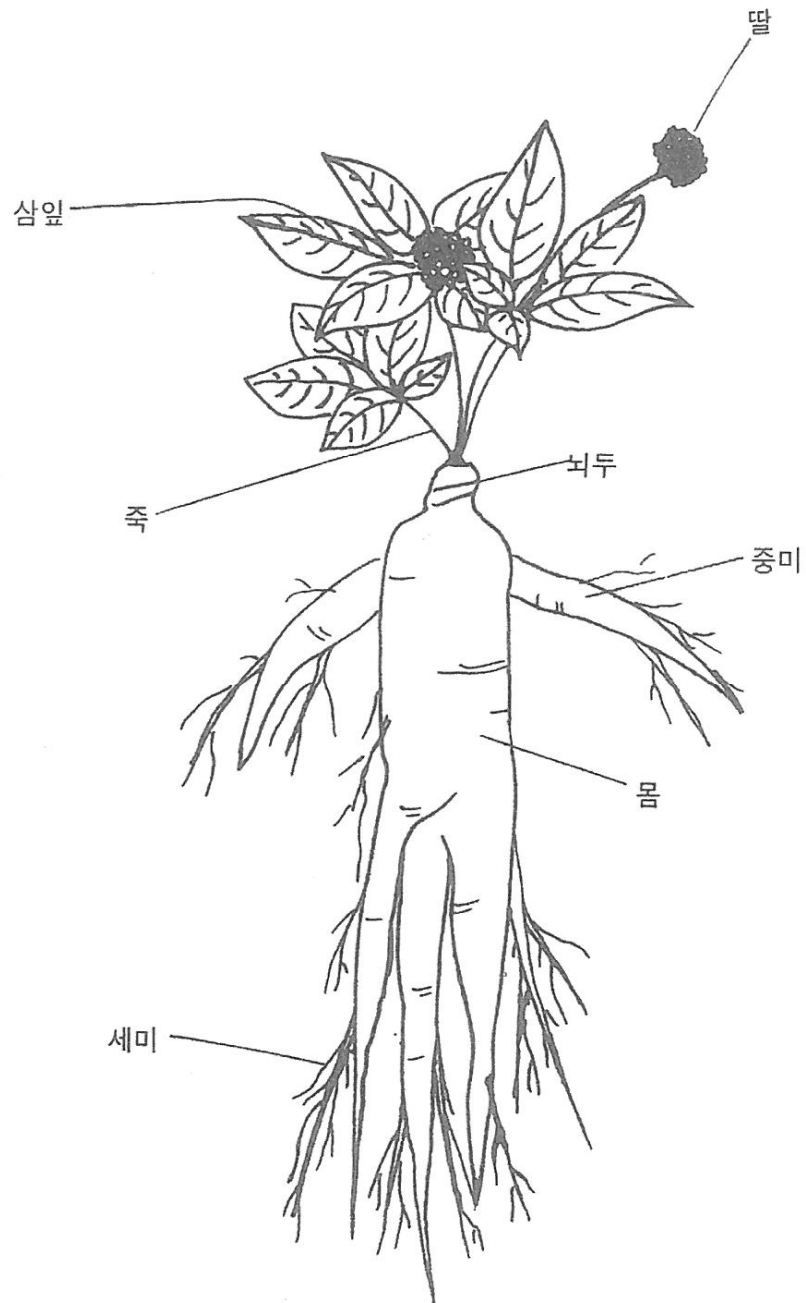
금산인삼은 인삼을 잘라보면 “심”이라고 부르는 가운데 부분이 80% 차지하고 다른 지역의 인삼은 10% 차지하여 말리면 금산인삼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인삼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

12) 인삼종자 보관과 인삼 보관

인삼종자는 음력 8월에 따서 냇물에 씻은 다음 깨끗한 모래와 섞어 시루 같은 데에 보관하였다. 인삼 역시 지금처럼 밭에서 키우지 않고 1920년대까지는 가을에 캐다가 봄에 심을 때까지 집에다 보관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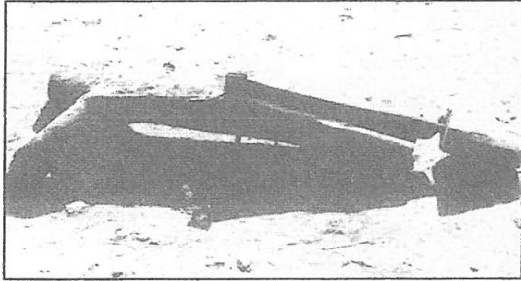


인삼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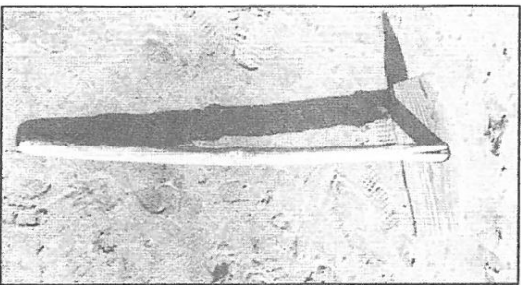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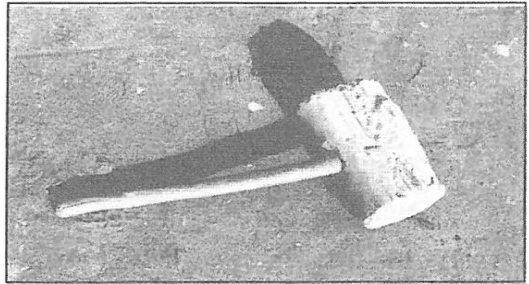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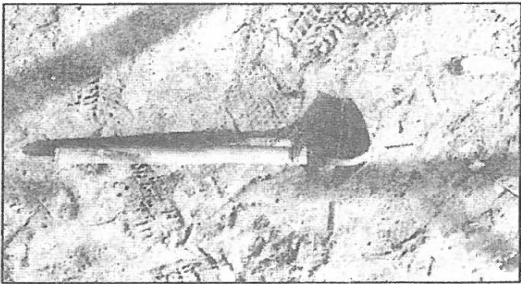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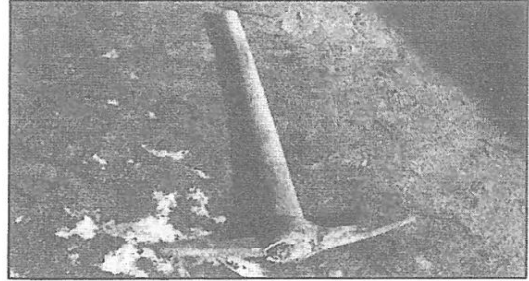


- 입노-인삼이 음력으로 3월 말경이 되면 땅에서 솟아오르는데 머리를 세운다는 뜻으로 입뇌(立腦)를 한다. 입노가 다 되면 삼장고사를 지낸다.
- 밥풀-인삼이 입노를 하기 직전에 뇌두 부분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 딸집는다-인삼의 씨앗을 딸이라 하는데 인삼 뿌리가 더욱 실하게 자라라고 어린 딸을 낳는 것을 말한다.
- 원통-삼장통을 출 때 인삼을 심는 두둑한 부분을 말한다.
- 질통-삼장통을 출 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든 고랑을 말한다.
- 가개-흔히 삼장을 꾸민다고 하는 것으로 통대와 밭을 펴는 것을 말한다.
- 색별-모래와 흙이 섞인 흙을 말한다.
- 종삼-흔히 시근이라 하는데 일년생 인삼을 말한다.
- 기보시-미삼도 아니고 온전한 삼도 못되는 어중간한 인삼으로 조금 모자란 듯한 인삼을 말한다.
- 피-인삼의 껍질을 말한다.
- 삼장-인삼밭을 말한다.
- 밭-인삼밭을 꾸밀 때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것을 말한다.
- 통대-인삼밭을 꾸밀 때 세우는 지주목을 말한다.
- 질밭-땅이 야문 황토흙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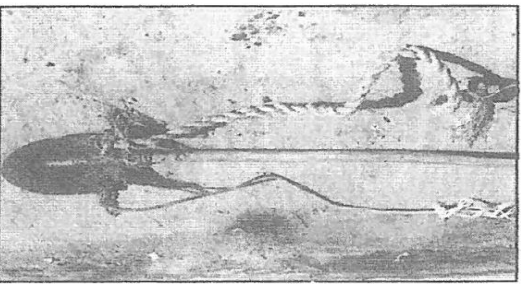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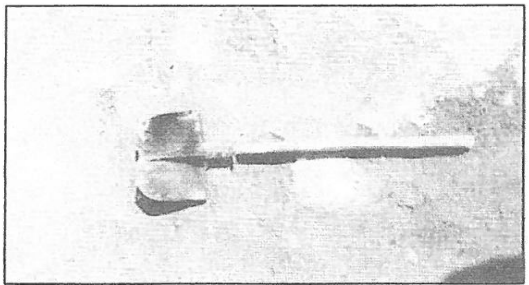
인삼농업의 농기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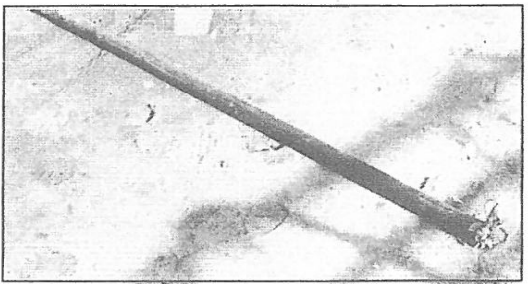
▲ 작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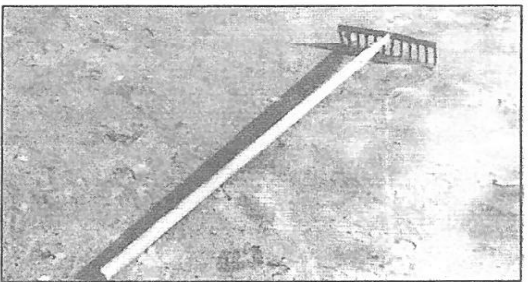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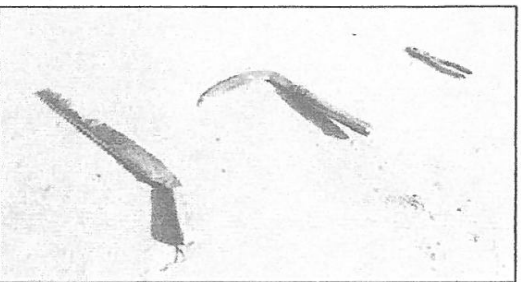
▲ 고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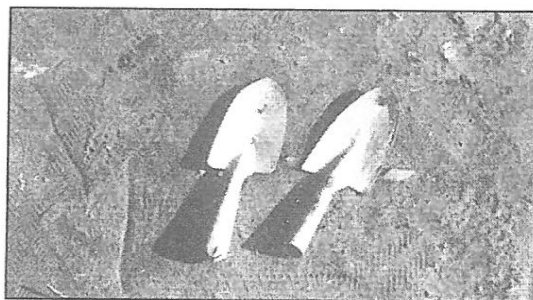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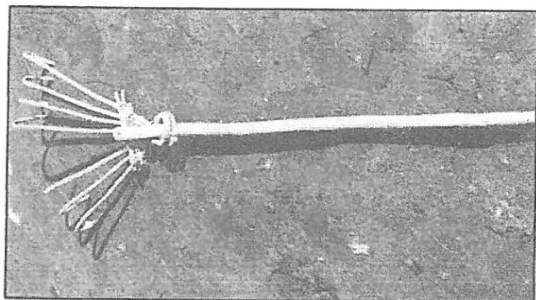


▲ 가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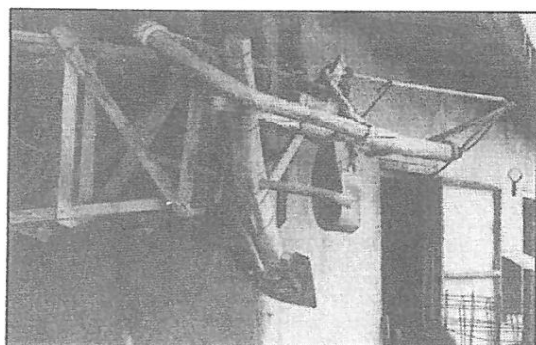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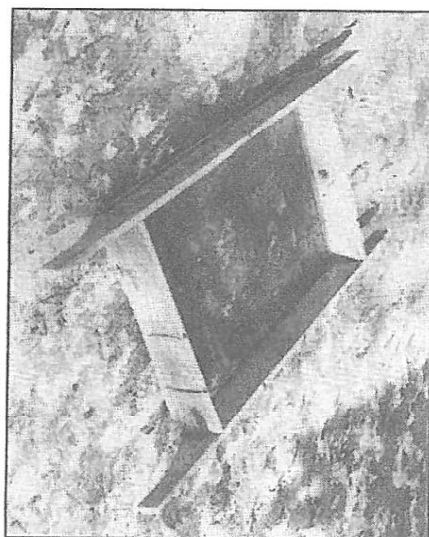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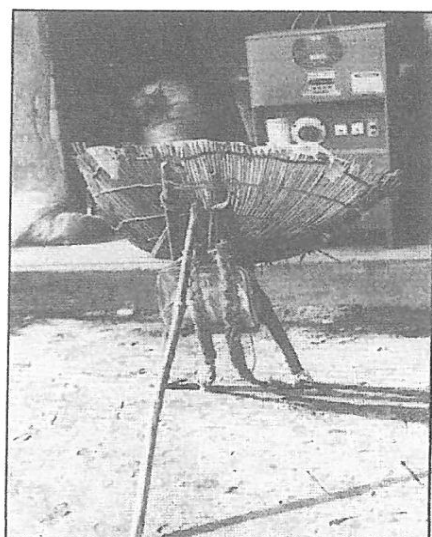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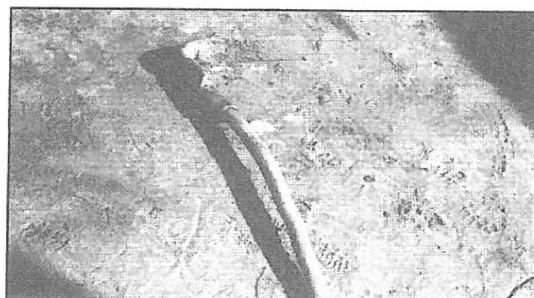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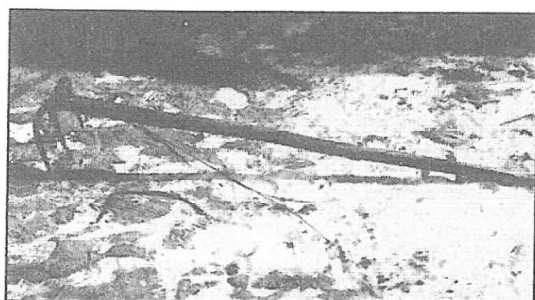


▲ 철장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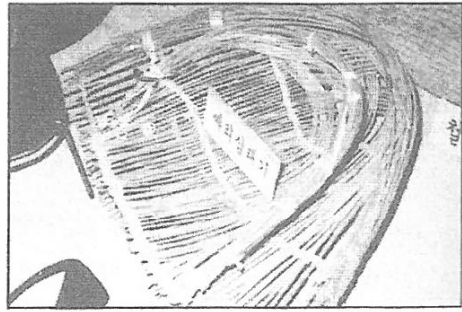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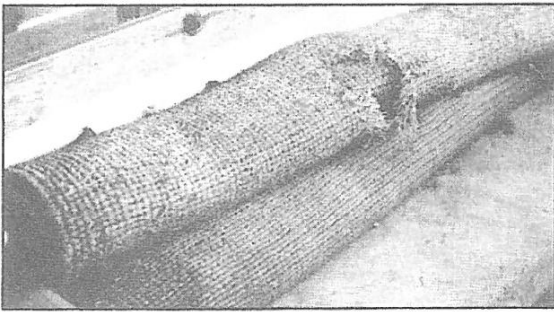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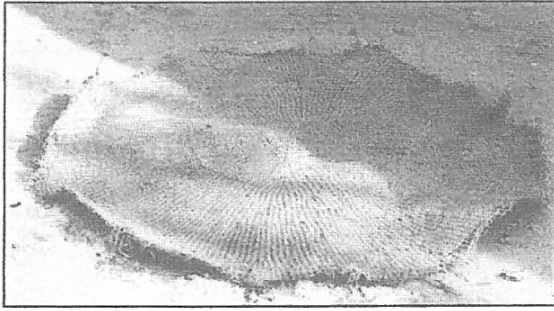
▲ 모종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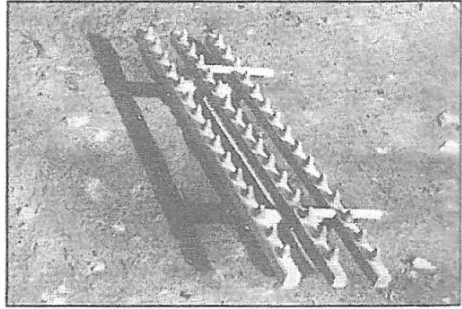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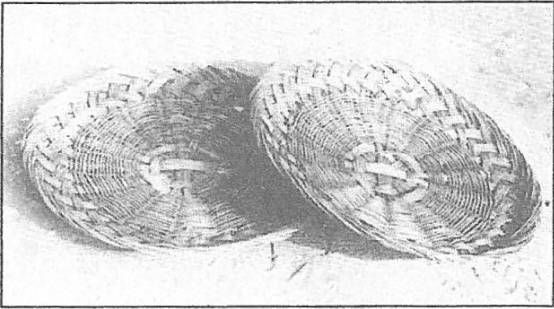
▲ 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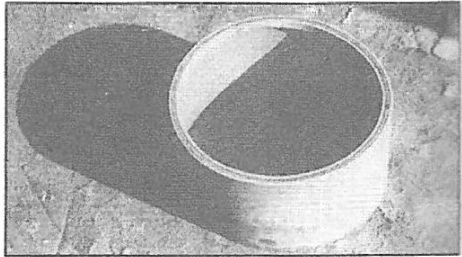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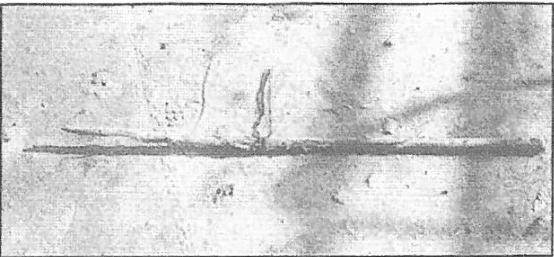
▲ 둥구미



▲ 싸리삼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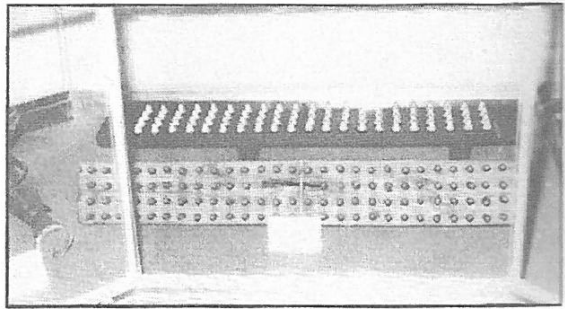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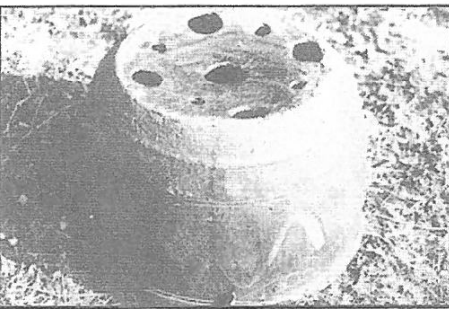


▲ 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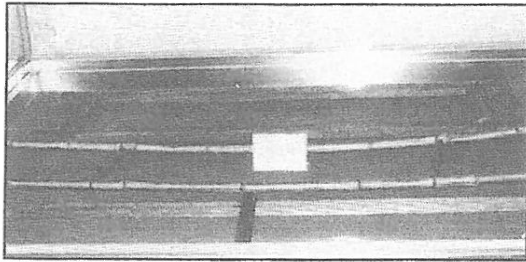
▲ 정간대

▲ 얼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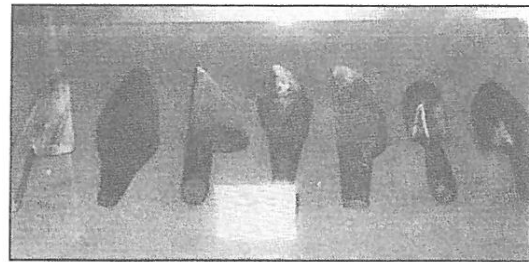


▲ 시루 (삼씨앗보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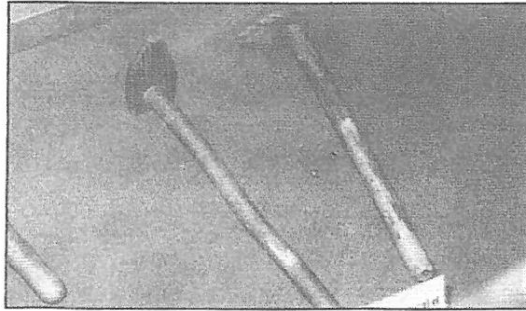
▲ 묘상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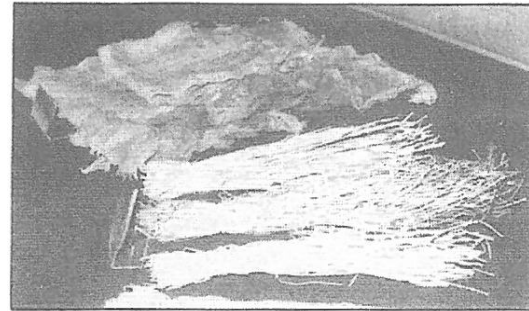
▲ 정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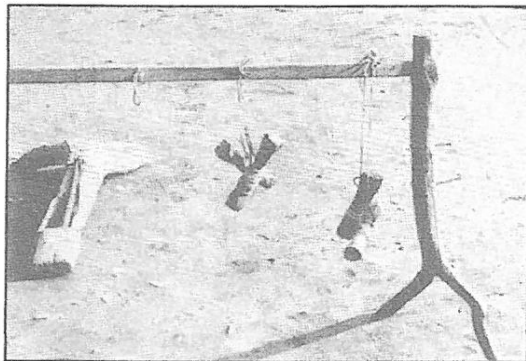
▲ 인삼심을 쓰는 삼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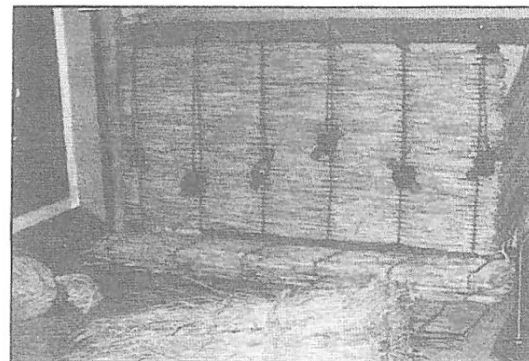
▲ 거름을 주기위해 골타는 도구



▲ 삼수건과 왕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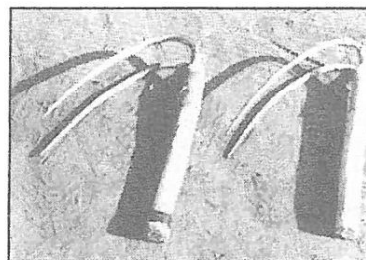
▲ 인삼발틀



▲ 발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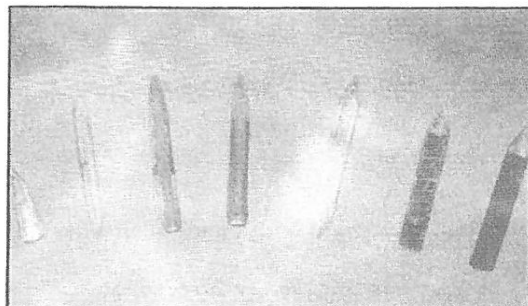
▲ 삼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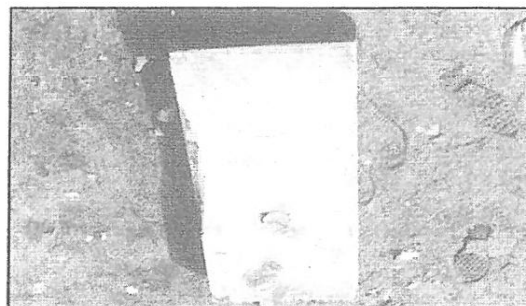
▲ 인삼곡괭이



▲ 두더지덫



▲ 삼작는 칼



▲ 인삼도마

부록 : 설화를 통해 본 ‘인삼’이야기(강현모, 2009, 금산문화원)

발표자료③

금산 인삼의 농업유산적 가치

조 영 재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본 원고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필요에 의해 본 원고를 인용할 경우, 저자와 사전에 협의 바랍니다.

錦山 人蔘의 農業遺産的 價値

2014. 9

조영재 · 유학열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I . 資源의 개요

II . 금산인삼의 농업유산적 가치

I . 자원의 개요

3

자원의 개요

■ 人蔘의 植物學的 特徵

- 오가과피과(Araliaceae) 파낙스속
- 北緯 30~48度 地域에서 自生하며, 주로 우리나라, 中國의 滿洲, 러시아 沿海州 등의 地域에서 自生

■ 人蔘의 이름

- 순우리말은 '심', 漢字로 '蔘'
- 中國에 人蔘이 없어서 우리말 '심'의 소리나는데로 '가지 치숫을 삼(蔘)' 사용
- 귀신 같은 효험으로 신초(神草), 사람이 받든다는 의미로 인함(人銜) 등 유래
- 學名 : Panax ginseng C. A. Meyer
(Panax = 모두(Pan) + 藥(Axos)의 複合語 → 萬病通治藥)
- 中國 상삼(祥蔘) 'ziangshen' → 'shinseng' → 'ginseng'으로 변천

4

자원의 개요

■ 高麗人蔘이란?

- 고려인삼(Korean ginseng, 高麗人蔘) : 韓半島에서 生産되는 人蔘
- 현재 鎭山郡에서 많이 栽培되고, 흔히 韓國蔘, 朝鮮蔘이라 부르기도 함
- 외형상 뇌두가 충실, 주근이 비후하고 원주형, 지근이 발달, 사람모양의 형태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인삼은 고려인삼과 계통, 형태, 성분의 차이




이름(學名)	소엽수 (蘇葉數)	뿌리형태 (根形態)	原產地
고려인삼(P. ginseng)	5	사람모양	한국, 만주
미국삼(P. quinquefolium)	5	원주형	북미동부
삼칠(P. notoginseng)	7	소형당근	중국운남
죽절삼(P. janonicum)	7	대나무뿌리모양	일본, 중국운남 등
삼엽삼(P. trifolium)	3	공(구형)	북미동부
히말라야삼(P. pseudoginseng)	5	구근형	네팔

자료 : 금산인삼관 홈페이지, www.geumsan.go.kr/html/insam

5

자원의 개요

■ 人蔘의 種類





區分	種類	特徵
生育環境에 따른 區分	재배삼(栽培蔘) 	인삼밭에서 인공적으로 기른 삼으로 그 형태가 사람 형상이므로 인삼이라 한다. 재배되는 인삼의 뿌리는 비대근(肥大根)으로 원뿌리와 2~5개의 지근(支根)으로 되어 있고 미황백색이다. 지근의 수는 토질 · 이식방법 · 비료 · 수분 등에 의해서 차이가 있으나 분지성이 강한 식물이며 그 뿌리의 형태는 아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확은 4~6년근 때에 한다.
	장뇌삼(長腦蔘) 	산삼의 씨를 자연상태에서의 산림속에서 인공적으로 기른 인삼으로 장뇌 또는 장뇌산압, 장로(長蘆), 산양산삼이라고도 한다. 장뇌라는 이름은 줄기와 뿌리를 잇는 뇌 부분이 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다. 깊은 산속 그늘지고 외진 곳에서만 자라는 특징이 있다.
	산삼(山蔘) 	깊은 산골 자연상태에서 자생한 인삼으로 적응증이나 효용은 인삼과 비슷하나 약 효과가 월등하다. 맛은 달고 약간 쓰다.

자료 : 금산인삼관 홈페이지, www.geumsan.go.kr/html/insam

6

자원의 개요

■ 人蔘의 種類

區分	種類	特徴
加工類型에 따른 구분	생삼(生蔘) 	4~6년근 인삼을 땅에서 캔 그대로의 원형 인삼으로 인삼 고유의 성분이 그대로 들어 있어 그냥 생으로 먹으면 좋다.
	백삼(白蔘) 	4~6년근 생삼을 원료로 하여 겉질을 살짝 벗겨 내고 그대로 햇볕에 말려 건조한 것으로 수분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가공한 원형유지 인삼이다.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주용도는 약재와 차에 사용된다.
	홍삼(紅蔘) 	생삼을 수증기로 찌서 익힌 다음 건조시킨 담적홍갈색의 제품으로 품질에 따라 천삼, 지삼, 양삼 등으로 나뉘며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태극삼(太極蔘) 	생삼을 뜨거운 물속에 일정기간 담구어 표피로부터 동체의 일부를 호화시켜 건조한 것으로 홍삼과 백삼의 중간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색상이나 효능은 홍삼과 유사하다.

자료 : 금산인삼관 홈페이지, www.geumsan.go.kr/html/insam

7

자원의 개요

■ 금산 고려인삼의 역사

- 中國 도홍경(陶弘景, 452~536) 편저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中國 명나라 이시진(李時珍, 1518~1593) 편저 '본초강목(本草綱目)'
→ 백제삼, 고려삼은 규격화된 재배인삼, 백제삼은 금산에서 인공재배 인삼
- 개성산 직삼(直蔘), 풍기산 반곡삼(半曲蔘), 금산 곡삼(曲蔘)으로 발달
- 1910. 3. 10 : 개성인삼조합(開城人蔘組合) 설립, 직삼형태 가공, 시판
- 1923. 5. 10 : 금산인삼조합(錦山人蔘組合) 설립, 금산곡삼 검사, 포장, 판매
- 1950년 이전 : 6년근 개성직삼과 4~5년근 금산곡삼으로 국내외 시장 양분화
- 6.25전쟁 이후 : 개성인삼조합 활동 중단, 금산인삼조합의 역할 증대,
1970년대까지 국내외 인삼시장 독점
- 1972년 : 인삼규제법 제정에 따라 금산 인삼조합의 독자적 검사권 행사 상실
→ 금산곡삼 상표 대신 고려인삼 상표로 통일, 한국인삼계 대표로 군림

8

Ⅱ . 금산인삼의 농업 유산적 가치

9

농업 유산적 가치

■ 1500년의 인삼 재배역사

- 5세기 중국 양(梁)나라 시대의 도홍경((陶弘景)의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중국 명(明)나라 시대의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의 기록
- 1500년 전 백제시대 이전에 인삼의 효능을 알고, 그로 인해 양나라에 헌상 (세종실록지리지 등)
-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와 금산의 거리(50km)가 가깝고, 제주도와 전라도 등 남부지역에서는 인삼이 나오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금산인삼으로 추정



1970년대 금산인삼밭



현재의 금산인삼밭

10

농업 유산적 가치

■ 독특한 인삼재배 및 가공 방법

- 산삼의 종자나 유묘(幼苗)를 산에 재배하는 산양삼 재배법에서 오늘날 해가림 시설을 이용한 재배법으로 발달
- 음지성 식물로 해가림 시설 재배, 성장속도가 매우 완만(6년 동안 약90g 성장)
- 가장 오래된 전통유기농 시설농업 : 양분흡수 능력이 약해 고농도 화학비료보다 유기물 퇴비로 재배
- 심기 전에 3년간 청초를 넣고 가는 것을 반복해야 알맞은 토양 형성
- 한번 심으면 최소 15년간 다시 심을 수 없고 토양과 지형에 따라 생산량 좌우
- 금산인삼은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7월부터 채취하여 10월말까지 인삼 가공 → 여름인삼이라 불림(사포닌 함량 多)
- 금산인삼은 몸이 길고 단단하며 흰색을 띠
- 곡삼이라는 특유한 형태로 가공



11

농업 유산적 가치

- 한국과 외국 인삼밭의 차이점

한 국	중 국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가림이 90cm폭으로 동북향으로 비스듬히 기울여진 경사식(19~20도) 구조 - 아침의 시원한 햇빛을 직접 많이 받고, 오후의 뜨거운 햇빛은 받지 않는 구조, 기울기로 조절 - 통풍을 위해 소식재배, 종자 파종 1년후 묘삼 이식 - 성장 후 균형 잡힌 사람형태 - 생육기간 : 180일 - 향과 약효가 뛰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가림이 평면형과 아치형 비닐 하우스식 - 아침의 시원한 햇빛을 적게 받고, 오후의 뜨거운 햇빛을 많이 받음 - 촘촘한 밀식재배, 파종 후 2~3년 생부터 묘삼 이식 - 형태가 불균형적 - 생육기간 : 120~1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가림이 수평형으로 설치방향은 자유로움 - 아침의 시원한 햇빛을 적게 받고, 오후의 뜨거운 햇빛을 많이 받음 - 높고 폭이 넓어 고랑 사이에 트랙터 이용 가능 - 직파 과밀재배로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대부분 난발삼 형태 - 3~4년근까지만 재배 가능 - 생육기간 : 120~130일



자료 : 금산인삼관 홈페이지, www.geumsan.go.kr/html/insam

농업 유산적 가치

■ 금산인삼의 월등한 약효와 효능①

- 인삼의 대표성분인 사포닌은 파낙사디올계(PD), 파낙사트리아올계(PT)로 나뉘고, 수 십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
- 외국삼은 그 종류가 13~15종, 고려인삼은 30여종으로 PD계와 PT계의 균형
- 인삼의 임상효과

구 분	효 과
강장효과	정신적, 육체적 또는 각종 생리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피로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킴
성기능부전에 대한 효능	성호르몬 결핍으로 나타나는 성기능부전을 회복시켜 줌
동맥경화증 및 고혈압에 대한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동맥경화증을 예방 또는 치료하며, 비특이성 생체 방어능력 증대적응에 의하여 고혈압을 낮춤
조혈장기 및 빈혈에 대한 효과	인삼이 골수의 핵산 및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 빈혈을 치료시켜 줌
혈당대사 및 당뇨병에 대한 효과	인삼을 인슐린이나 식이요법 또는 현행 약물요법과 병행하면 상승효과를 나타내어 치료에 효과가 있음
항암효과	암세포의 증식작용을 억제 또는 저해함
간기능부전에 대한 효과	손상된 간장을 재생시켜 간장기능을 부활케 하는 작용이 있음
숙취에 대한 효과	급성 알콜중독에 효과가 있음

자료 : 금산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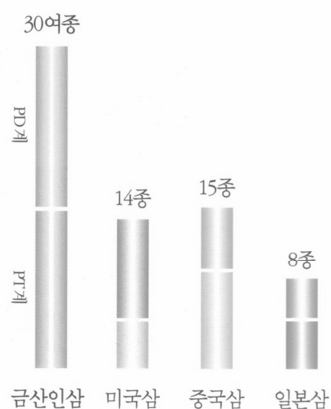
13

농업 유산적 가치

■ 금산인삼의 월등한 약효와 효능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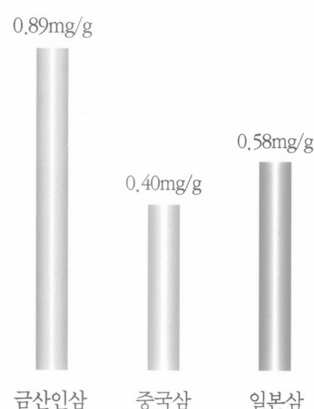
- 금산인삼은 사포닌 함량, 비교정량, 미량원소 등 인삼의 대표 8개 성분 중 금산인삼 4년근은 6개 부문에서 국내외 최고, 나머지 2개 부문도 최고치 수준

【각국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 수 및 성분비】



자료 : 금산군 내부자료

【암세포증식억제성분(폴리아세틸렌) 함량비교】



14

농업 유산적 가치

※ 금산인삼이 월등한 약효와 효능을 지닌 이유

- ①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의 역사, 인삼 중 최상품인 백제인삼의 맥
- ② 금산 전체면적의 71.5%가 산지, 금산인삼 중 26%가 산지에서 재배
→ 산삼의 재배 기후와 토양 조건
- ③ 항암성분 등 약리활성이 우수한 다양한 성분 함유
- ④ 사포닌 성분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 모든 체질의 사람들에게 사용
- ⑤ 9~10월에 채취하여 사포닌 함량이 월등히 높음

- 금산인삼의 함유 성분 및 약리적 효능

구 분		함유성분	약리적 효능
유기물	사포닌	프로토파낙사디올계 사포닌(20종) 프로토파낙사트리올계 사포닌(10종) 올레아놀린산계 사포닌(1종)	노화방지 항암효과 혈압조절
	함질소화합물	단백질, 아미노산, 펩티드, 핵산, 알카로이드	방사선장해 회복 등
	지용성 성분	지질, 지방산, 정유, 식물 스테롤, 유기산, 페놀화합물, 폴리아세틸렌, 테르페노이드	암세포증식억제, 노화억제, 항피로 등
	비타민	수용성비타민	피로회복
	탄수화물	다당류, 3당류, 2당류, 단당류, 조섬유, 펙틴	항당뇨, 면역기능증진
무기물	회분	무기물	15

자료 : 금산군 내부자료

농업 유산적 가치

■ 인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공동체①

① 인삼은 금산군 농업의 중심 작목

- 재배 농가수 : 1,435호(금산군 전체 농가의 20.2%, 충남 인삼농가의 33.4%)
- 재배면적 : 635ha(충남의 28.8%, 전국의 3.9%)
- 채굴 및 생산 : 1,160톤(충남의 25.0%, 전국의 4.5%)

※ 금산인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2012년)

	재배면적			채굴 및 생산		
	농가수	재배면적 (ha)	호당면적 (a)	농가수	수확면적 (ha)	수량 (ton)
전국	23,795	16,174	68.0	-	4,689	26,057
충남(A)	4,291	2,205	51.4	1,640	979	4,631
금산(B)	1,435	635	44.3	660	268	1,160
B/A(%)	33.4	28.8	-	40.2	27.4	25.0

16

■ 인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공동체②

② 금산은 인삼거래의 중심지

- 금산인삼국제시장 : 전국 백삼의 70~80% 유통되는 백삼의 집결지, 190여개 점포 밀집, 하루 거래량 평균 11톤
- 금산수삼센터 : 전국 생삼의 80% 거래, 하루 거래량 평균 150여 톤
- 금산인삼전통시장 : 오랜 역사의 전통시장으로 인삼, 약초 등 거래
- 금산인삼약령시장 : 중부권 최대의 한약재 전문시장으로 평균 300여 종 거래
- 금산인삼농협 수삼랜드 : 생산자가 조합원으로 직접 인삼 직거래
- 금산인삼종합쇼핑센터 : 인삼·약초종합백화점, 호텔 및 사우나 시설 구비
- 인삼랜드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휴게소
- 인삼하우스 : 인삼약초 상설매장, 금산인삼·약초 전시홍보 및 판매
- 인삼약초마을 : 낙안, 수통, 홍도, 장동이, 자존뱅이, 벌말, 개안, 용동, 다락동 등 9개 자연마을 육성, 인삼약초 관련 농촌체험 및 판매

17

■ 인삼테마의 지역문화

① 강처사설화

- 효성이 지극한 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어머니 병을 치유하기 위해 진악산 관음굴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꿈속에서 산신령의 계시를 받아 진악산 관음봉 암벽에서 빨간 열매 3개 달린 풀을 뽑아 다려드렸더니, 어머니 병이 완쾌되고, 그 씨앗으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설화
- 이를 기리기 위해 '개삼각'을 짓고(1983), 매년 '개삼제'를 드림



자료 : 금산군 내부자료



18

농업 유산적 가치

■ 인삼테마의 지역문화

② 개삼제

- 강처사 설화를 기리기 위해 '개삼각'에서 매년 '개삼제'를 드림
- 금산인삼축제의 시작행사로 오전 10시 개삼터 개삼각에서 강처사 인삼모시기와 본제, 식후공연 등 진행

※ 제33회 금산인삼축제의 개삼제 모습



자료 : 금산군 홈페이지, <http://www.geumsan.go.kr>

19

농업 유산적 가치

■ 인삼테마의 지역문화

③ 금산인삼축제

- 봄에 신령스런 인삼을 내려 준 산신령께 감사 드리고 인삼의 풍년을 기원하는 '삼장제'를 드려왔고, 1981년부터 지역 주민 화합형 축제인 금산인삼제 시작
- 금산인삼제가 발전을 거듭해 1996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 2014년 제34회 금산인삼축제가 9월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개최 예정

※ 1981년 제1회(좌) 및 2013년 제33회(우) 금산인삼축제 모습



자료: 금산군 문화관광포털, <http://tour.geumsan.go.kr/html/tour/>

20

■ 인삼테마의 지역문화

④ 금산세계인삼엑스포

- 금산인삼의 세계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 국제 경쟁력 강화, 국내 인삼생산 및 유통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06년과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 2006년 엑스포 : 관람객 66만명(내국인 64.7만명, 외국인 1.3만명),
33억 1,200만원의 수익과 2,031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 2011년 엑스포 : 관람객 250만명(내국인 246만명, 외국인 4만명),
2,004만\$의 계약추진, 4,614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계획중

※ 2011년 엑스포 모습 →



자료 : 금산군 홈페이지, <http://www.geumsan.go.kr>

<참고문헌>

- 고성권·임병옥, 2009, 고려인삼의 과학, 약업신문
- 금산군, 2013, 금산인삼 최고야! 7
- 김순기, 1972, 금산인삼의 기원에 관한 고찰, Korean J. Ginseng Sci., 3(1):39~40(1972)
- 김순기, 1992, 금산인삼재배의 역사적 고찰, Korean J. Ginseng Sci., Vol. 16, No. 2, 154~156(1992)
- 김순기, 1998, 문화유산으로서의 금산곡삼, 양서각
- 전동호, 1992, 금산인삼 사업 현황과 전망, Korean J. Ginseng Sci., Vol. 16, No. 2, 151~153(1992)
- 전창곤 외, 2012,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태호 외, 2011, 1500년 금산인삼 역사정립 연구용역, 금산군
- 금산군 홈페이지, www.geumsan.go.kr
- 금산인삼관 홈페이지, www.geumsan.go.kr/html/insam
- 금산군 문화관광포털, tour.geumsan.go.kr

부록

금산의 문화원형(1)

설화를 통해 본

'오! 사람' 이야기

강현모



금산문화원

인삼, 신이 우리에게 내린 천혜의 보물

1. 인삼의 유래

인삼은 원래 산간지방의 음지(陰地)에 자생하는 다년초식물(多年草植物)이다. 이베그르체프스키는 인삼을 인류가 약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연대를 적어도 4천~5천 년 전부터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약용으로 사용한 연대는 상세히 찾아볼 수 없으나, 인삼의 자생지가 한반도와 만주 일대인 점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민간 의원들의 경험에 의하여 약효를 인정하게 받았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인삼에 관한 최고(最古)의 기록은 중국의 전한 원제시대(前漢 元帝時代 : BC33년경)의 사유(史游)가 쓴 <급취장(急就章)>이란 한의시에 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의 <상한론(傷寒論)>, <신농본초본(神農本草本)>, <명의별록(名醫別錄)> 등의 한의서에서 인삼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약효 가치는 영약(靈藥) 또는 선약(仙藥)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인삼이 발견되고 이용되었지만, 조선 세종 이전은 중국의 문자를 빌어서 표현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문헌에 우리의 인삼에 관하여 기록된 것은 한사군 이후로 여겨진다. 즉 중국과 한반도 고대 국가 간의 문물교류가 활발하여지면서 중국에 전해진 인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귀한 약재로 문헌에 등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에도 인삼의 약효가 널리 알려져 한반에서 중국으로 인삼이 많이 보내졌다. 도홍경(陶弘景)의 <명의별록>을 보면, 백제는 무령왕 12년(513년)에 양나라의 무제에게 인삼을 예물로 받쳤으며, 435-546년에 고구려에서 인삼(산삼)을 중국에 보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명의별록>에는 '백제의 것을 중히 여기는데 형제가 가늘고 단단하며 희다. 기운과 맛은 상당에서 나는 것보다 박하다. 다음으로 고구려 것을 쓰는데 형체가 크며 허하고 연하여 백제의 인삼만 못하다'고 하여 백제의 인삼을 최고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라는 당나라 시대에 편찬한 <책부원구(冊府元龜)>에서 진평왕이 당나라 고조 10년(627년)에 인삼을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에 <삼국사기>에 중국에 여러 차례 조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의 인삼이 조공품과 선물, 무역 상품으로 활발하게 거래되었을 추측된다. 이것은 한반도 전역이 인삼의 산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다. 즉 서공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고려인삼의 산지에 대해 '재재유지(在在有之)'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전국 각지에서 산출되었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의 인삼공물지역으로 329개 군현 중에 113개 군현이라는 점을 볼 때 전국적으로 자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인삼 재배의 기원

산삼은 하늘과 땅의 기를 가진, 즉 음과 양의 정기를 품고 오행과 자인 섭리의 조화로 자생한 천연삼으로 태고의 신비를 품고 있는 신령초(神靈草)이다. 인삼은 한국에서도 약용식물로서 일명 천삼(天蔘) 또는 산삼(山蔘)이라 한다. 삼국시대의 인삼의 명칭을 보면 백제는 조삼(條蔘) 및 양각삼(羊角蔘)이라 하고, 신라는 라삼(羅蔘)이라 하였으며,

고구려는 고구려삼이라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삼 등으로 불려왔다.

산삼은 삼국시대 이후 조공품으로 반드시 사용되었다. 발해가 당나라와 무역할 때 수출되었으며, 고려시대에도 송나라와 많이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즉 1280년 충렬왕 6년 정복균(鄭福均)은 조공사로 원나라에 조공품으로 바쳤으며, 조선시대에도 명나라에 조공품으로 사용되었다. 중세 이후로 일본과는 관 무역보다 사 무역(私貿易)이 성행하였다. 1745년 영조 11년에는 산삼 한 냥의 값이 쌀 2섬10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산삼은 국내 수요와 국외 수출의 증가하는데 산출량이 제한되므로, 조선시대에는 관 무역 외에 국외 수출을 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산림의 화전 개간으로 인하여 산출량이 감소되어 공급은 일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더욱이 민간 의사들의 경험으로 약용으로 개발되어 이용되면서 야생 인삼은 점진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아 인삼을 인공적으로 재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 인삼재배의 기원설

인삼의 재배에 관한 기록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고, 다만 설화의 형태로 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 재배에 관한 이야기가 지방에 따라 양상이 다르지만, 대개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식을 얻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산신에게 기도를 드렸다가 신의 계시에 따라 종자를 얻어 파종하거나 자연산 산삼을 옮겨 심은 것이 인삼 재배의 시작이라고 한다.

재배 인삼이 발달되기 이전에도 인삼이라고 하였는데, 이때는 오히려 산삼을 가리켰다. 자연에서 자란 산삼을 채취하는 사람은 일반인들도 상당수가 있으며, 관에서 허가하여 준 산삼채취자를 채삼군(採

蔘軍)이라고 하였다. 공납을 위하여 나라의 산삼 채취로 자연생 인삼은 고갈되었으며 부족현상은 선조(1567-1608) 때에 이르러 심하였다. 그 후 숙종 영조 때에는 산림 개간에 의해 삼림 면적이 감소하면서 자연산 인삼의 채취량이 급감하였으나, 수요는 오히려 증가되어 가삼(家蔘) 또는 장뇌삼(長腦蔘 : 山養蔘)의 재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정조실록>이나 기타의 문헌에서 가삼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서유구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는 가삼 재배법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산속에서 시작한 것이 차차 평지에서도 가능한 인공 재배법이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즉 1900년대에는 인삼 재배가 밭으로 내려와 개성지방을 중심으로 기업적인 인공재배법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음지 식물인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해지는 방향으로 두둑 방향을 잡아 직사광선의 투입을 막았다. 또 체형을 중시하여 직파재배에서 이식재배로 전환하였으며, 육묘기술개발의 발달하면서 심산의 퇴적 낙엽과 쌀겨, 유박, 고랫재, 초목회 등을 혼합하여 독창적인 복합 유기질 비료인 약토를 만들었다. 그리고 약토와 원야토를 배합하여 상토를 조제한 양직묘포 재배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인삼이 후숙종자임을 알아 채종한 종자를 개갑시켜 파종하거나 묘포일복 전면에 면령을 설치하여 미기상을 조절하는 등 오랜 세월 동안 노력으로 인삼재배기술이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인삼 재배의 기원에 관한 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삼 최초 재배지 「개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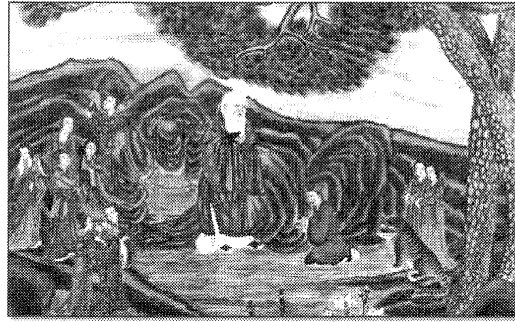
1,500년 전 강씨 성을 가진 처사가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진악산 관음굴에 가서 정성껏 모친의 쾌유를 빌던 중,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관음봉 암벽에 있는 빨간 열매 3개 달린 풀을 달여 드리라’고 일러주었다. 이대로 행하였더니 어머니의 병이 완쾌되었고,

이때부터 처음으로 인삼을 재배하게 되었다고 한다.

(2) 화순에서 미인 낭자와 사귄 인삼

*제1화

고려 시대 동복(同福)현(현재의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에 거주하던 최씨가 중병에 걸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는 황



산신령이 장차사에게 인삼을 계시하는 모습

천길만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 그의 처가 산신에게 낭군의 병이 완치되도록 기도를 하였더니 어느 날 밤 꿈에 산신이 나타나 ‘모후산에 가면 영약이 있으니 그 것을 쓰라고 하였다.’

그 부인은 그 곳에 가서 본즉 사람의 형태와 비슷한 초근을 발견하여 그것을 복용 시킨바 남편의 중병이 완치되고 원기가 왕성하게 되어. 이후에 그 종자를 집에 재배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 제2화

옛날 전라도 동복(현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집에 미인 낭자(娘子)가 있었다. 언제인지 모르게 이 집에 한 미장부(美丈夫)가 밤중에 나타나 낭자와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깊은 밤중에 와서 이른 새벽에 어디론지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이상한 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전연 알 길이 없었다. 낭자는 기쁘고 즐겁기는 하나 이 남자가 어디 있는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해 한편으로 꺼름직하고 걸리는 바가 있어 그 실정을 아버지께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딸에게 다시 남자가 오면 바늘에 실을 꿰어 남자의 옷에 몰래 꽂아 놓으라고 일러 주었다. 딸은 마침내 남자의

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집에 약삭빠른 하녀가 하나 있어서, 이 일은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와 하는 짓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그날 밤에 불을 켜놓고 이웃 방에서 남몰래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런데 한밤중쯤 되어서 어디선지 모르게 한 미소년이 나타나 불을 끄는 것을 보았다. 이 광경을 본 하녀는 몰래 소년의 뒤로 가서 실 땀 바늘을 옷소매에 꽂아 놓았다. 소년은 아무 것도 모르고 불을 끈 후에 어디론지 사라져 갔다.

이튿날 아침 하녀는 주인에게 어젯밤의 일을 낱낱이 알리고 주인과 같이 실을 따라가니 산중 바위 사이의 풀 위에 꽂혀 있었다. 그곳을 파보니 무 만한 뿌리가 하나 나와서 집으로 가져와 버렸다. 그랬더니 그날 밤 주인의 꿈에 산신이 나타나 말하기를,

“오늘 내가 가져간 것은 인삼이라는 세상에서 귀중한 영약이노라.”

하고 가르쳐 주었다. 이래서 인삼임을 처음 알고 잘 심어 씨를 받아 재배하여 파니 큰 부자가 되었다. 그 후 그 하녀를 장남의 처로 맞아들여 잘 살았다 한다.

이밖에도 의술이 뛰어난 신작과 관련되어 <사람에게 용기를 준 인삼> 등 지방에 따라 다양한 재배 기원에 관한 설화가 전승되고 있으나 그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육종의 역사

위와 같은 설화적 배경으로 인삼의 재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인삼의 근대적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씨앗의 개발에 관한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인삼은 재배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자가채종(自家採種)에 의하여 종자가 전래되어 왔으므로, 언제부터 종자의 개량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현재 재배되는 재배종 인삼은 양생종 인삼인 산

삼에서 유래되었으나, 재배종과 야생종 간에 형태는 물론 생리적인 특성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인삼의 재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의도적 또 관습적으로 종자의 선발이 계속되어 왔다.

1926년에 경기도 개풍군에서는 성숙된 장과가 황색을 띠는 황숙종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해에 경기도 장단군에서는 줄기의 색깔이 녹색을 띠는 청경종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1931년에는 경기도 개풍군에서 등황숙종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변종들의 선발은 우리나라 인삼 재배의 역사상 인삼의 계통 선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인삼의 육종이 시작된 시기는 192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인삼의 형태적 특성에 국한된 연구가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려인삼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이다. 1962년 중앙전매기술 연구소가 설립되고, 경기도 과천에 고려인삼시험장이 설치되었다. 1963년에는 전래되어 오던 황숙종과 자경종 간의 특성비교 연구가 수행되었고, 1966년부터 순계 분리 육종을 위하여 인삼재배 주산지에서 우량개체를 선발 수집하여 특성을 비교하는 한편, 종자를 증식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1964년 나가노쵸(長野縣) 인삼시험장에서 일본의 나가노쵸(長野縣)와 시마네쵸(島根縣) 등의 인삼주산지에서 우량개체를 수집하여 계통 선발법에 의해 ‘미마키’라는 품종을 육성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앙전매기술 연구소에서 인삼연구 부서만을 분리 전매청의 산하에 고려인삼연구소가 설립하여, 인삼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특히 품종개량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수집된 우량개체의 종자 증식과 아울러 계통을 선발 육성하였으며, 일부 우량계통에 대해 생산력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삼은 환경에 따르는 변이가 크게 나타나는 작물이므로, 선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식 위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변이에 따르는 년생별 인

삼의 각종 형질의 변이가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1981년에는 고려인삼연구소가 한국인삼연초연구소로 확대 개편되면서 시설과 인력이 보강되었으며, 인삼의 육종에 관한 연구의 영역도 더욱 확대되었다. 방사선 및 화학약품 처리에 의한 인삼의 돌연변이 육종 연구가 시도되었고, 인삼의 육종에 조직 배양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또한 중간 및 변종 간의 교배를 통한 인삼의 유전현상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고려인삼과 미국인삼의 형질 특성과 내용 성분에 관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수집된 개체로부터 선발 육성된 계통 중 KG101에서 KG109까지 9개 계통이 우수 계통으로 판명되어 산지 적응시험이 실시되었다. 이들 중 몇 개 계통은 품종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품종의 출현이 기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우수 계통들의 산지 적응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고 확대 보급을 위한 종자의 증식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인삼의 성분 및 홍삼 제조시의 품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3. 인삼 명칭의 유래

1) 인삼이란 용어의 유래

옛날에 신작(新作)이라는 남자가 여러 맹수들의 맹위를 이겨나갈 길이 없어 존락을 피하여 깊은 밀림 속으로 은신하여 살고 있었다.

하루는 심신이 피로하여 바위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의 증조부인 신광(新光)의 영이 꿈에 나타나

“신작아, 무서워 할 것 없다. 어디에 가서 어떤 풀뿌리를 먹어라.”

하는 말을 듣고는 꿈이 깨었다. 신작은 그 곳에 가서 그 풀의 뿌리를 캐어 먹고 나니 과연 용기백배하여 그 많은 맹수도 무서울 것이 없었다 한다. 이 풀이 오늘날 인삼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나, 당시는 그것으로 끝났던 것이다.

후세에 와서 황해도 남부 모춘에 부부가 살고 있었으나, 나이 30세가 넘도록 아이가 없음을 걱정하던 중 백일기도로써 산신에게 빌어 꼭 100일째 되는 날 은빛의 백발 백의의 노인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 자손을 내려주마.”

하고는 그 노인이 사라져 버렸다. 이 부부는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보니 사람은 없고 사람 형태의 풀 한 뿌리가 하나 있어 실망을 하였다. 그러나 그 뿌리를 가져다 심어 정성껏 기르니, 그 뿌리가 커가면서 차차 사람 형태를 닮아가므로, 이를 먹고 잉태하게 되어 얼마 가지 않아 귀동자를 낳았다고 한다. 이리하여 그 뿌리의 이름을 인삼이라고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인삼은 우리의 고유어로 심이다. 심이란 명칭에 왜 불리게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민족 대대로 인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심을 가장 먼저 사용한 문헌은 성종 20년에 편찬한 <구급간이방언해(救急簡易方諺解)>로 인삼(人蔘)이라 쓰고 언해할 때 심으로 번역해 놓았다. 그 이후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유희의 <물명고(物名攷)>에서도 심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심으로 불리던 인삼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원래의 이름과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 방법을 찾아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 중국에서는 인삼의 표기 어휘로 '參, 蔘, 寢, 寢, 沈, 侵'이 등장하였을 것이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과 일본은 삼(蔘)이라 불렀고, 우리나라에도 심 대신에 인삼이라고 불리고 있다.

인삼에 대한 용어도 <금취장>에서 삼(蔘)으로 기록되어 있고, 전한 말에서 원대까지의 많은 기록에는 인삼(人蔘)으로 되어 있으나, 수나라의 육법언(陸法言)의 광운(廣韻)에 삼(蔘)을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인삼(人蔘)으로 표기하였으나, 조선시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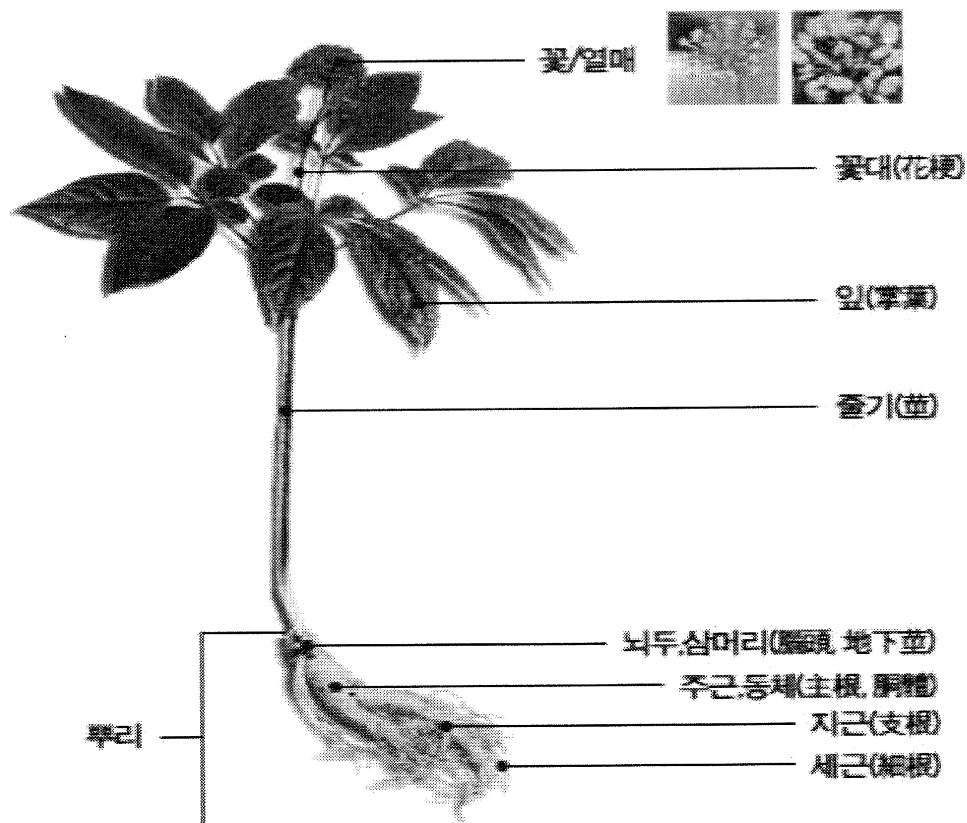
에는 인삼(人蔘)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인삼의 ‘인삼(人蔘)’ 또는 ‘인삼(人參)’의 글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인(人)’자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같은 견해다. 즉 인삼의 뿌리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상형문자인 ‘인(人)’을 쓴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반해 ‘삼(蔘)’ 또는 ‘삼(參)’자에 대한 해석은 구구각색이다. 글자의 유래에 대해 명·청 시대에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는데, 인삼의 형태, 효능, 인류에 대한 공헌 정도 등의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했다. 명나라의 사조제는 <오잡조(五雜俎)>에서 ‘參은 삼재(參才)를 뜻 한다’고 했다. 명나라의 설기(薛己)는 <본초약언(本草約言)>에서 ‘삼(參)은 인삼(人參)이 사람의 원기를 보하는 참찬(參贊)의 공이 있어 삼(參)이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나라 때 황궁수(黃宮繡)는 <본초강목구진(本草綱目求真)>에서 ‘인삼의 공(功)은 천지와 더불어 병행불패(並行不悖)하며, 이는 마치 성군이 치세함에 있어 만민을 무육(撫育)하고 참찬위육(參贊位育) 병립위찬(竝立爲贊)하는 것과 같으므로 삼(參)을 쓴다’고 했다. 또 청나라의 장은암(張隱菴)은 <신농본초경삼가합주(神農本草經三家合注)>에서 ‘인삼은 천숙(天宿)의 광화(光華)를 겸하고 지상의 광후(廣厚)를 중(鍾)하고 연구(年久)하면 인형(人形)을 이루는 삼재구비(三才具備)의 약이기 때문에 사람의 오장을 주관하므로 삼(參)을 쓴다’고 했다. 청나라의 심목(沈穆)도 <본초동전(本草洞詮)>에서 ‘삼은 연심(年深)하여 침점성장(浸漸成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고 했다. 또 삼립지(森立之)는 <신농본초경고주(神農本草經攷注)>에서 ‘삼(參)은 삼(三)을 뜻하며 인삼이 삼(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식물과 다르기 때문에 삼(參)이라 한다. 그 뿌리가 인형(人形)을 이루는 까닭에 인삼(人參)이라 이름하고 오삼(五參)과 구분한다’고 했다. 청나라의 육항(陸恒)은 ‘삼의 산지인 태행산맥의 지형이 천문삼성(天文參星)의 방향이어서 삼(參)자를 쓴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한자 사전에서는 ‘삼(參)’의 훈은 ‘석 삼’ ‘참여할 참’으로 되어 있고 ‘蔘’은

‘인삼 삼’으로 나와 있다

2) 인삼 용어

- * 꽃, 열매 : 삼꽃은 3년생부터 피기 시작하며, 처음에 초록빛을 띠던 열매는 무르익으면서 붉게 변한다. 흔히 ‘인삼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따다가 말린 것을 종자로 쓴다.
- * 잎 : 잎은 잎자루가 길고 잎몸은 5갈래로 저서 산개의 잎꼭지에 여러 개의 작은 잎이 손바닥처럼 붙어 있다. 끝이 뽕족하고 가장자리는 가는 톱니모양을 하고 있다.



- * 뿌리 : 이 부분이 바로 인삼이다. 약용과 식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 * 뇌두, 삼미리 : 인삼은 다년생으로 해마다 잎과 줄기가 말라 죽는데, 이때마다 뇌두에 흔적을 남긴다. 산삼의 경우 뇌두가 큰 것을 고가품으로 치는데, 특히 고려인삼은 다른 나라 삼에 비해 뇌두가 큰 것이 특징이다.
- * 주근, 동체 : 인삼의 가장 중심 부위인 몸통으로, 여러 형태로 가공 처리되어 약용과 식용으로 쓰인다.
- * 지근 : 보통 2~5개의 지근이 있다. 지근의 수는 토질, 재배 방법, 년수 등에 의해 차이가 난다.
- * 세근, 세미 : 지근에 붙어 있는 잔뿌리이다. 이 부분만 떼어낸 것을 미삼이라고 하며 인삼차 등에 사용된다.

3) 심메마니들이 사용한 은어들

은 어	의 미	은 어	의 미	은 어	의 미
넙대, 넙패	곰	웅어지	송아지	너구리	옷
소마니	다람쥐	우어지	소	연초	담배
노승, 서산이	쥐	쿨쿨이, 목고지	돼지	모새, 보래미	쌀
마당너구리	개	흑조구	까마귀	감사	된장
산개	호랑이	올림대	순가락	무리미	밥
진대마니, 긴대	뱀	새 웅	술	홀림, 마주보기	술
된장	질	반짐	냄비	홀림	물
부루치	눈	노추리	바가지	줄매	비
쥐아미	손	감재미	낮	누렁마리	초
노래기	해	마대	지팡이	다구리	식사

덤팡이	안개	모듬	움막	숨	맑은물
찌개, 방우	돌	잘매	도끼	구슬리다	죽다
건들게	바람	논달	피	젠다	찾다
불거지, 달불	불	주 루 목, 태기	망태기	안침하다	쉬다
초산이	풀	다알	산삼열매	뜯 일귀놓다	불 놓다
다래	나무	오구	1백년에서 2백년까지 묵은 산삼		
사시미	길	육구	2백년이 넘어 5백년까지 된 산삼		
디딤, 주점 이	신발	도 삼 (都 蓼)	아랫도리가 통통하고 여자의 몸처럼 생긴 삼		
잼	손아귀	인 형 삼 (人形蓼)	사람처럼 팔다리의 모양을 갖춘 삼		
거지	허리춤	와삼 (蛙 蓼),	몸뚱이에 겹가지가 많이 난 삼		
장마니	여자 심 마니	담 배 를 실른다	담배를 피우는 것		
동자마니	아이	농심마니	장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덕	산신	안방마니	심마니의 부인		

4) 심메마니의 삶

심마니들은 자기들만이 쓰는 독특한 말을 사용한다. 산삼이 자라는 산은 산신령이 지배하는 신성한 영역이기 때문에 속된 세상의 말을 쓰는 것은 불경한 일로 여겼던 것이다. 더욱이 산신령이 점지해 주지 않으면 산삼을 캐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산삼을 캐러 산에 가는 일을 심메라 하고, 산삼 캐는 사람을 심메

마니, 줄여서 심마니라고 한다. 이때 심은 산삼을, 메는 산, 마니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심마니는 경력이나 입산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붙여진다.

경력에 따른 명칭을 보면, 산삼을 캐러 다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날소맹이, 초년생은 초마니 혹은 소맹이, 10-20년 경력자들은 심마니 혹은 소장마니, 30-40년 이상 경험이 많은 이름이 난 사람은 노마니 또 이인마니라 한다.

입산시기에 따라 처서 무렵에 산삼을 캐러가는 사람을 일삼(日蔘) 심마니라 하고, 추분 경에 입산하는 사람은 동삼(東蔘) 심마니이며, 입동 이후 겨울에 입산하는 사람을 만삼(晩蔘) 심마니라 부른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산삼을 마구 채취하는 바람에 산삼채취를 허가제를 만들었다. 산삼을 채취하는 심메마니들을 ‘채삼꾼(採蔘軍)’으로 호직부에 올렸다. 이들은 일정 기간을 허가를 받아 입산을 하였다. 그 기간을 보면, 묘절(苗節)은 늦은 봄에 산삼이 싹이 트기 시작할 무렵으로 다른 식물이 무성하지 않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때이고, 단절(丹節)은 산삼의 열매가 빨갛게 익어 발견하기 가장 쉬운 여름철이며, 황절(黃節)은 산삼 잎이 누렇게 될 때이다. 이 중에 황절에 해당하는 처서부터 입동 전후의 시기 캔 산삼이 형태도 좋고 약효도 높다고 한다.

심메마니들이 입산할 때는 많은 금기와 속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양의 수인 홀수에 입산을 하게 되지만, 그 날씨가 인일(寅日)인 호랑이날이면 피하였다. 이밖에 많은 금기들이 주어지는데, 이를 지킨 뒤에 입산을 하게 된다. 입산 인원도 3인이나 5인 등 홀수로 가는데, 이들을 이끄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어인마니를 중심으로 가게 된다.

이들이 산중에서 산삼을 발견하면 3가지 방식으로 분배를 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는 원앙메, 처음 산삼을 발견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독메, 산삼을 캔 사람이 각자 갖는 각메가 있으나 일반적

으로 독매 방식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독매 방식은 처음 발견한 사람이 ‘심봤다’고 3번 외치며 갖고 다니던 지팡이를 부근에 꽂으면, 다른 일행은 그 자리에 멈춰 앉는다. 삼을 발견한 사람이 시야에 들어온 산삼에다 표시를 한 뒤에, 일행들은 일어나 구경을 하면서 미처 표시되지 않은 삼을 찾아 자신 목으로 산삼을 돋운다.

4. 인삼에 관한 상식

1) 인삼 고르는 방법

상점에서 수삼을 고를 때 부피가 크고 통통한 인삼을 좋은 인삼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인삼은 품질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과 별개이다.

인삼의 약효는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인삼은 외형이 크다고 하여 약효가 그만큼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연근에 맞는 적절한 크기가 가장 좋은 것이다. 즉 성장 연수에 비해 크기가 너무 큰 것은 오히려 속이 무를 수 있다. 예로 산삼이나 장뇌삼의 크기를 재배 인삼과 비교해 보면 인삼의 효능이 크기로 결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삼은 예로부터 사람의 형태를 닮은 것을 최고 등급으로 여겼다. 머리·몸통·팔·다리 각 부위가 사람처럼 균형 잡힌 형태로 달려 있어야 좋은 인삼이다. 홍삼을 제조할 때 보면, 아무리 통통하고 큰 인삼이어도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추지 못하면, 열을 가해 찢을 때 속이 바람난 무처럼 구멍(내공)이 많고 희끗희끗한 백태(내백)가 있다. 따라서 홍삼제조업체는 인삼의 크기보다 뇌두·동체·뿌리의 선명한 구분과 형태적 균형 등을 품질 기준으로 삼아 차등 수매를 한다.

옛날 ‘인삼산업법’에는 인삼(수삼)의 등급을 1등·2등·3등·등외로 구분했다. 이때의 기준을 살펴보면, 1·2·3등은 공통적으로 몸통과 균형을 이룬 머리가 있어야 하고, 몸통이 부분적으로 비대하지 않으며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1등급 : 몸통의 길이가 6cm 이상이고, 5cm 이상의 다리가 2개 이상인 것
이나 몸통의 길이가 10cm 이상이고, 직립형이어야 한다. 또 몸통 지름이 몸통 길이의 2/3 이하이다.

2등급 : 몸통의 길이가 4cm 이상이고, 3cm 이상의 다리가 2개 이상이거나 몸통의 길이가 8cm 이상이고 직립형인 것, 몸통 지름이 몸통 길이의 1/2 이하이다.

3등급 : 몸통의 길이가 3cm 이상으로 몸통과 균형을 이룬 다리가 있는 것 또는 몸통 길이가 5cm의 직립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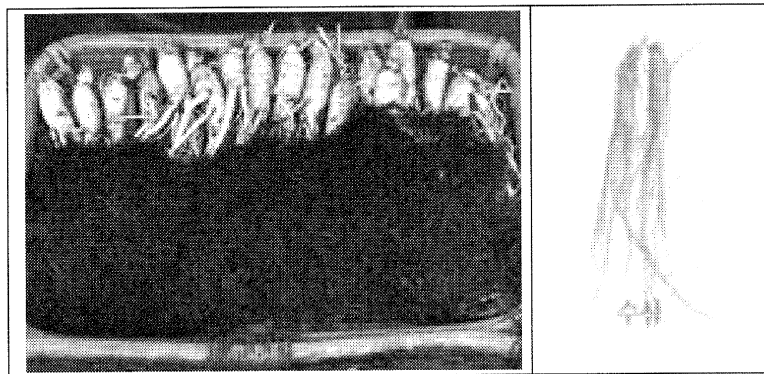
이런 기준을 볼 때, 좋은 인삼은 몸통에 2~3개의 굽은 뿌리가 있고, 모양이 완벽한 것이 좋은 것이다. 또 몸통에 빨간 반점이나 검은 반점이 없고, 잔뿌리가 원형을 유지하고 많이 붙어 있는 것이 좋은 삼이다.

2) 인삼의 종류와 보관 방법

인삼의 종류는 가공에 따른 분류와 재배 방법에 의한 분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재배 방법에 의한 인삼의 분류는 인삼밭에서 인공적으로 기른 재배삼, 인삼 씨를 깊은 산중에 뿌려 산삼처럼 자연 그대로 재배한 장뇌삼, 그리고 깊은 산속에서 자생한 산삼이 있다. 그리고 가공 방법에 따른 분류는 수삼, 백삼, 태극삼, 홍삼으로 나누어 진다.

(1) 수삼

수삼은 경작지에서 수확한 후 특별히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인삼을 말한다. 일명 생삼이라고 하는데, 약효가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어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수분이 75% 이상인 수삼은 채굴된 상태로 1주 이상의 저장이 어렵고, 유통과정 중에 부패하거나 손상이 일어나기 쉽다. 특히 상온에서는 수일(일 주일) 내에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야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수삼은 상온에 한 번 노출될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가 많이 증식되고, 냉장 조건 하에서도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가급적 수일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삼은 대개 고년근으로 5~6년, 저년근으로 4년에 수확한다. 수삼은 세월의 깊이와 경작인의 정성을 먹고 자란 영삼이자 영초이다.



이런 수삼의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수삼을 비닐에 싸서 냉장실에 넣어 보관한다. 이렇게 냉장실에 넣어 보관하면 약 2개월 내외로 저장이 가능하다. 3~5뿌리 정도 소량 보관할 때는 신문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한 번에 소비할 양만 신문에 싸서 냉장실에 보관하되 냉장고에서 꺼낸 인삼은 즉시 사용해야 한다. 저장 기간 동안에 약간의 물을 가끔 몸통에 뿌려 저장하면 싱싱하게 보관된다. 그리고 비닐로 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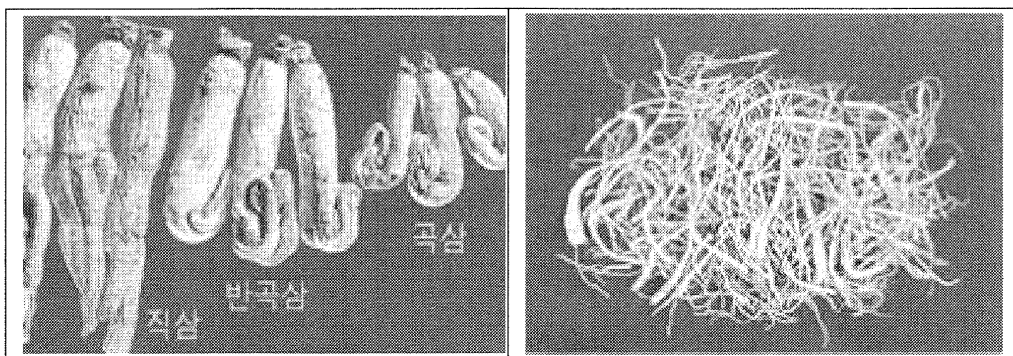
서 보관할 때는 숨구멍을 3곳 정도 내주어야 한다.

둘째, 상인들은 상자나 빈 그릇에 이끼와 인삼을 겹겹이 쌓은 후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보관한다. 냉장고 시설 없이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끼가 건조를 방지해 줘 최장 1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셋째, 깨끗한 모래에 겹겹으로 묻어 놓는 방법으로 1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 모래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수분을 공급하면서 보관하는 방법인데, 주로 대량 보관할 때 사용한다.

(2) 백삼

백삼은 수삼을 익히지 않고 햇볕과 열풍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말린 것을 말한다. 수삼의 껍질을 살짝 벗겨내고 그대로 햇볕에 자연건조 하거나 60도 이하의 열풍으로 건조시켜 제조한 것이다. 백삼은 수분 함량이 14% 이하로 1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며, 진공포장의 경우 3년 보관도 가능하다. 백삼은 보존이 불량하면 백삼 내부가 세균에 의해 변질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



백삼의 색깔은 미황백색을 띠며, 말린 형태에 따라 직삼(直蔘), 반곡삼(半曲蔘), 곡삼(曲蔘)으로 구분한다. 직삼은 백삼의 형태가 직립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표피를 없앤 백삼이다. 반곡삼은 다리부분

을 몸통부분까지 즉 삼 길이의 절반까지 반쯤 구부려 말린 백삼으로, 반곡삼이라 불리는 것이다. 곡삼은 형태가 각부는 물론 동체의 일부 까지도 둥글게 말아 말린 백삼을 말한다.

직삼 : 체형이 직립 형태를 나타내도록 제조한 삼.

반곡삼 : 동체는 직립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각부의 일부를 구부려서 제조한 삼.

곡삼 : 동체의 일부와 각부의 전체를 구부려서 제조한 삼.

미삼 : 수삼상태의 미삼과 백삼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는 미삼을 건조한 삼으로, 크기에 따라 대미, 중미, 세미로 구분한다.

생건삼 : 표피 및 뇌두가 부착되어 있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삼.

춘미 : 묘삼을 건조하여 제조한 삼.

과삼 : 인삼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피해 정도가 동체 표면적의 $\frac{2}{3}$ 이상인 피해 삼으로 제조한 삼.

피부백삼 : 직삼의 가공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나 표피가 붙어있는 삼.

(3) 태극삼

태극삼은 수삼을 끓는 물로 찌거나 데쳐서 말린 것이다. 태극삼은 직립형태 원형 유지 가공제품으로, 백삼과 홍삼의 중간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수삼을 90℃ 이상 열수처리 하여 껍질로부터 동체의 일부를 호환시켜 건조한 것으로, 표피의 색상은 담황갈색을 띠고 절단했을 때의 단면은 홍삼의 절단면 색상과 유사한 담갈색 환이 나타난다.

(4) 홍삼

홍삼은 수삼을 증숙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익혀 만든 삼을 말한다. 수삼을 장기간 저장할 목적으로 수증기로 찐 다음 익혀서 건조시킨 담적황갈색의 인삼이다. 증삼과 건조의 과정을 거쳐 수분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가공하는데, 다갈색의 색상을 가지며 매우 단단한 형태로 가공되어 원형이 장기간 유지된다. 진공 캔으로 포장된 경우 2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며, 중국에서는 특유의 향이 짙어진 오래된 홍삼을 더 좋은 상품으로 여겼다.

(가) 홍삼의 등급

홍삼의 품질은 인삼이 밭에서 자라는 동안 강우량·기온 등의 기상 조건, 병충해 발생 등 자연환경과 재배기술, 토질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홍삼의 분류기준은 머리·몸통·다리 부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는 형태적인 면과 홍삼 외부 색깔(담황갈색)을 1차 선별 기준으로 한다. 홍삼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내부조직의 치밀도를 작용해 선별한다. 홍삼은 말린 체형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천삼(天蔘), 지삼(地蔘) 양삼(良蔘)으로 구분하고, 가공 상태에 따라 절삼과 미삼으로 나눈다.

천삼은 홍삼 중에 품질이 가장 양호한 특상품으로 내용조직이 치밀하고 외형이 가장 좋은 것이다. 최고급 천삼은 색깔과 뿌리 상태가 완벽하고 내부조직도 매우 치밀하고 견고하며 절단면은 담황갈색이다. 천삼의 내부조직은 머리 밑 부분을 사선으로 절단 시 내공과 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 이하여야 한다. 여러 해살이 식물의 특징인 나이트는 다른 등급의 삼보다 뚜렷해 6년이란 세월 동안 갖는 풍상을 이겨낸 흔적이 역력하다. 전체 홍삼 중 천삼의 비율은 1~2%로 생산량이 매우 적은 희귀품이다. 천삼이 가장 귀한 이유는 내부조직이 치밀해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삼은 천삼 다음 등급의 양호품으로, 내용조직과 외형면에서 천삼에 비해 약간 미약하다. 지삼은 내공과 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이고 몸통 길이의 1/4 이하이어야 한다. 양삼은 지삼 다음 등급의 양호

품으로, 내용조직과 외형면에서 지삼에 비해 약간 미약한 것이다. 양삼은 내백이 몸통 길이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이 몸통 길이의 1/2 이하이다.

절삼은 양삼 다음의 등급으로 동체를 이등분하여 포장한 것이다. 미삼은 홍삼 동체 이외의 대미, 중미, 세미로 구분 선별한 양질의 것으로, 백삼과 태극삼 등의 제조과정에서 나온 잔뿌리를 말린 것이다. 사포닌 함량이 가장 풍부하고 영양가가 많아 삼계탕 등 각종 음식이나 기타 인삼차용으로 많이 쓰인다.

(나) 홍삼을 달이는 방법

홍삼을 높은 온도에서 너무 오랜 시간 달이게 되면 사포닌 성분의 일부가 가수분해 될 수 있으므로 약 86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내외 정도 달이는 게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100도 이상 넘어가면 사포닌 성분이 파괴되므로 적정 온도인 86도로 달인 후 추출액을 포장 직전 95도까지 올려서 1시간 정도 달이면 추출 효과도 증가시키고 포장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다) 홍삼 뿌리의 지수

한국에서는 홍삼을 캔으로 포장해 시중에 판매할 때 홍삼의 크기를 ‘지(支)’로 나타낸다. 이때 지는 600g 포장에 들어 있는 홍삼의 실제 뿌리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홍삼의 뿌리 크기 또는 무게를 나타내는 말이다. 홍삼의 크기는 10지 · 15지 · 20지 · 30지 · 40지 · 50지 · 60지 · 70지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600g을 기준으로 할 때 홍삼이 각각 14뿌리 · 19뿌리 · 28뿌리 · 38뿌리 · 48뿌리 · 58뿌리 · 68뿌리 · 78뿌리가 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홍삼의 지별 및 포장단위별 뿌리 수는 농림부에서 1999년에 제정한 ‘인삼산업법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로 15지

600g짜리 포장에는 15뿌리가 아닌 19뿌리의 홍삼이 들어 있어야 하며, 30지 600g짜리 포장에는 30뿌리 대신에 38뿌리의 홍삼이 들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15지 홍삼 한 뿌리의 무게는 평균 31.6g이어야 하며 30지 홍삼 한 뿌리의 무게는 평균 15.8g이어야 한다.

구 분	포장단위별 뿌리 수				
	600g	300g	150g	75g	37.5g
10지	14	7			
15지	19	10			
20지	28	14	7		
30지	38	19	10	5	
40지	48	24	12	6	3
50지	58	29	15	8	
60지	68	34	17	9	
70지	78	39	20	10	
소지	70~100	40~50	21~25	11~13	

<인삼산업법시행규칙(1999)>에 규정된 홍삼의 지별 및 포장무게별 뿌리 수

포장단위가 달라도 지가 같으면 포장에 들어 있는 홍삼 한 뿌리의 평균 크기나 무게는 거의 동일하다. 예를 들면 30지 홍삼의 경우 600g짜리 포장에는 38뿌리가 들어 있어야 하고, 300g짜리 포장에는 19뿌리가 들어 있어야 하며, 150g짜리 포장에는 10뿌리가 들어 있어야 한다. 이들 포장 안에 들어 있는 홍삼 한 뿌리의 평균 무게는 각각 15.8g · 15.8g · 15.0g으로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크기가 거의 동일하며, 모양도 비슷하다.

이처럼 포장단위에 실제로 들어 있는 홍삼의 뿌리 수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덩의 문화에서 비롯된 습관으로 추측된다. 즉 홍삼 15뿌리를 사면 4뿌리를 덩으로 주고, 30뿌리를 사면 8뿌리를 덩으로 주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겉포장에 홍삼의 뿌리 크기를 나타내는 말로서 ‘지(支)’를 사용하지 않고 ‘조(條)’를 사용

한다. 조(條)란 포장 안에 들어 있는 홍삼의 실제 뿌리 수를 가리킨다.

627m) 등 솟아 있어 평균고도가 250m에 달하여 도내에서 가장 큰 산악군을 이룬다.

하천은 금강의 본류가 부리면과 제원면에서 심하게 곡류하면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흘러간다. 남이면 상금리에서 발원한 봉황천(鳳凰川)은 남일면과 부리면을 지나 제원면 천내리에서 금강에 합류된다. 이밖에 추부면 추정리에서 발원한 서화천(西華川), 군북면 조정리에서 발원한 조정천(鳥亭川), 와정리에서 발원한 금산천(錦山川)도 금강으로 흘러든다. 이들 하천은 넓은 충적평야를 이루지 못하고 약간의 평지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기후는 중부 내륙지방에 자리하고 있어 연교차가 심하며, 해발고도가 높아 같은 위도상의 다른 지역보다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에는 서리와 눈이 많다. 연평균기온 11.4℃ 내외, 1월 평균기온 -3.1℃ 내외, 8월 평균기온 24.9℃ 내외, 연평균강수량 1,252mm이다.

2. 금산지역과 인삼

1) 인삼과 연계된 금산

금산은 인삼을 빼놓고 얘기가 되지 않는 고장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삼의 집산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지역은 내륙 산악분지로 여름에도 서늘하여 1모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량의 자급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벼농사와 인삼재배가 활발하였다. 총경지 면적은 109.62km²이며, 그 가운데 논이

58.42km², 밭이 51.20km²로, 논이 밭보다 조금 많지만 경지율은 19.02%이다. 많은 농지가 고장의 특산물인 인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군은 인삼을 해방 후 남한 생산의 95%를 독점했으나, 현재는 그 생산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80% 이상을 인삼 재배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



금산의 인삼은 지금부터 몇 백 년 전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산신의 계시를 받고, 금산읍 서남쪽에 있는 진악산에서 인삼을 발견하여 재배를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인삼을 이곳의 특산물 중 첫째로 꼽으며 ‘군의 시쪽 월외리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금산 인삼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 일로 보인다.

금산 인삼은 재배 방법에서부터 독특한 경향을 띠는데, 개성식 재배방법과 달리 촘촘하게 심고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 인삼은 생육환경과 지리적 조건, 그리고 채취기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금산은 일교차가 심하고 모든 기후 여건이 인삼재배에 천혜의 조건을 지녔다. 금산 인삼은 타 지역 인삼에 비하여 몸체는 작지만 단단하고 순백색을 띄고 있다.

1500년의 역사를 지닌 금산 인삼은 한여름인 7월부터 채취하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인삼 가공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금산 인삼은 여름인삼으로 불려진다. 이처럼 약리 작용이 최고 수준에 다다른다는 7월에 채취하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포닌 함량이 높고 약효 성분 또한 뛰어나다. 즉 인삼의 주요성분인 사포닌 함량이 금산 인삼(여름인삼)은 5.2%로 다른 지역의 인삼보다 월등히 높다.

금산 인삼은 몸이 길고, 단단하며 색이 흰 것이 보통이다. 이것을

곡삼이라는 특유한 형태로 가공하는데, 이는 금산의 전통적인 가공방법으로 금산 인삼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이곳의 인삼 재배지는 인삼 재배 후에 사과 과수원으로 전용되기 때문에 인삼과 더불어 사과도 많이 생산된다. 또한 군내 각지 및 인접한 각 군을 연결하는 도로교통의 중심지로, 정기시장이 열려 인삼을 비롯한 농산물의 집산이 활발한 곳이다.

2) 금산 인삼시장의 역할

금산읍의 정기시장은 2일장과 7일장이 선다. 닷새마다 한 번씩 서는 금산장은 다른 장과 달리 인삼장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금산 인삼장은 강화나 포천 같은 곳의 인삼장과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80% 이상이 이곳에서 거래되는데, 이는 해방이 된 뒤로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온 금산 인삼장의 특징이다. 금산은 세계인의 건강 메카 고려인삼의 종주지이며, 국제인삼시장, 수삼시장, 인삼전통시장 등 전국 인삼의 집산지(1시일 거래액 : 150톤/57억 원)이다. 또한 전국 3대 약초시장을 형성(1시일 : 67톤/ 6억 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부 들깨잎, 남일 배, 바리실 사과, 복수 한우불고기, 땅두릅, 금강어죽 등 다양한 특산물이 있다.

금산 인삼시장과 더불어 성장 발전한 금산 약령시장은 전국 최대의 시장으로, 200여 종의 질 좋은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는 전문시장이다. 평소에는 300여 도매, 소매업 상설 약재전문판매업소와 20여 명의 노점상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장날(2.7일)에는 300여 명의 노점상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전통 세래시장의 멋과 풍요함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특히, 노점에는 직접 재배한 약초와 산야에서 직접 채취해 온 사연산 약초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가 새벽부터 거래되고 있

다. 직접 채취해 옴에 따라 약재가 싱싱하며, 품질 역시 좋으면서도 값이 아주 싼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 약초시장 내에는 금산 인삼시장이 있고, 농산물시장이 함께 개설되므로 값싸고 질 좋은 인삼약초와 농특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국제인삼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백삼류 전문 시장으로서 200여 업소가 집단화되어 연중 상설 개장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국내 백삼 생산량의 70~80%를 유통시키며, 다양한 종류의 인삼을 가장 싼값으로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며, 택배 주문, 인터넷 주문, 전화 주문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국내 백삼류 거래 가격이 국제인삼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어 인삼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 유통시장이다.

또 인삼 중 수삼만을 전문으로 유통시키는 집단시설로서 140여 수삼단일 품목 취급업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약초시장인 생약시장이 연중 상설 개장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삼을 도매, 소매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전국 수삼생산량의 80% 정도를 유통시키며, 국내 수삼거래 가격이 바로 이곳에서 형성되고 있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연근별, 크기별, 품질별로 소비자가 선택하여 직접 구입하실 수 있다. 농민이 재배하여 밭에서 캐낸 수삼을 직접 금산수삼센터로 수송하여 판매하므로 품질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수삼 구매할 때에 약초도 함께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많은 양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금산 장날(2, 7일)이나 하루 전날에 와 수삼도매시장을 이용하면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금산 사람들의 인삼에 대한 사랑은 신앙에 가깝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1,500년의 전통이 필요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과 약초하면 금산으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적 명성을 떨치는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금산 사람들의 의지이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한다고 해도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시장의 기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만남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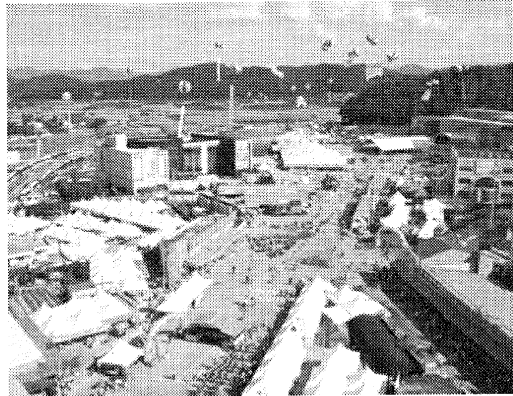
때문에 장은 서고 사람들은 모여든다. 장은 단순히 물건의 거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5일장이야말로 거의 유일한 만남의 장소였으며, 나흘 동안 농사일을 하고 하루는 허리를 펴면서 생산한 농산물을 내다 팔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뿐 아니라 또한 다정한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금산읍에는 인삼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금산삼엽조합이 있다. 1923년에 설립되어 금산인삼동엽조합, 금산인삼조합으로 이름을 바꾸어 오다가, 1993년부터 금산삼엽조합으로 명칭을 새로 하고 해마다 봄에 인삼씨앗을 나누어 주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집에는 집단 가공을 해주고, 그 가공된 인삼을 도매상인에게 넘겨주는 일도 한다. 그런데 금산삼엽조합은 금산군 안의 인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충남의 연기군, 전라북도의 진안군, 완주군, 무주군, 익산군, 장수군, 임실군, 충북의 옥천군, 경북의 금릉군, 선산군, 경남의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인삼까지 다룰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인삼과 축제

금산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축제가 열린다. 그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인삼의 고장답게 매년 9월 중에 삼장제를 현대와의 조화를 이루어 군민 축제로 발전·전승시켜 열리는 ‘금산인삼축제’가 1981년 이후에 계속 개최되고 있다. 이 축제는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삼의 주산지로서 인삼의 본질과 약초의 효능을 규명하여 널리 선양하고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소비를 창출시켜, 군민의 소득증대를 기함은 물론 이 금산의 전통문화 행사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다. 이 행사는 진약산 산신제, 개삼제 등의 풍성한 볼거리 행사와 더불어 인삼을 소재로 한 각종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따라서 축제의 참여는

축제 기간 동안 인삼시장과 약초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삼과 약초를 구입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행사는 백제시대 강처사 효행설화가 서려 있는 개삼터와 세계 최대의 인삼과 약초시장이 밀집해 있는 인삼약초시장을 중심으로 5일간 열린다.



3. 금산에 전래되어온 인삼 이야기

인삼에 관한 설화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런 인삼(산삼을 포한 의미)에 관한 설화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118편이 조사되었고, ‘풍기인삼 다음카페’에 100여 편의 자료가 개작되어 전하고 있다. 그밖에 개인 조사 자료집에 수록된 것은 그 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이 중에서 ‘풍기인삼 다음카페’에서 수록된 자료는 읽기 쉬도록 개작되어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도, 인삼에 관한 설화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자료들을 검토하면, 조사 대상 전국 62개 시·군 중에 43개 시·군에서 조사되어 있다. 4편 이상을 조사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곳이 8편의 충남 부여군이며, 그 뒤를 이어 6편의 강원도 영월군, 경남 진주시·진양군이 있고, 5편의 경기도 의정부·남양주군, 강화군, 경북 상주군, 군위군이 있으며, 4편의 대덕군(현재 대전시에 편입), 울산시·울주군 등이 있다. 그리고 필자는 금산군에서 44편, 부여군에서 10편과 무주군에서 6편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필자의 자료까지 더하면 부여군은 18편이 되고, 금산

군 일원인 금산군, 내덕군, 무주군 일대에서 54편이나 조사되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들의 내용을 보면, 단편적으로 인삼 대한 자료들은 인삼이 발견되었다는 장소나 인삼의 효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늙은 노인과 결혼한 뒤에 산삼을 먹여 자식을 보았다거나,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삼을 먹여 살려냈다는 내용이다. 이런 단편의 내용이 구체적인 인삼(산삼)과 결합되면서 서사화 구조를 갖춘 이야기로 발전하여 전승되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조사된 인삼설화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하도적퇴치설화에 결합된 유형으로 친구 간이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우연하게나 산삼을 캐러 갔다가 산삼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산삼은 낭떠러지 절벽 밑에 있었다. 그래서 칩줄로 밧줄을 만들어 한 사람은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고, 한 사람은 위에서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에 있던 사람이 욕심으로 배반을 하고 밧줄을 내려주지 않아서, 밑에 있던 사람은 절벽에 밑에 갇혀 있다가 뱀의 도움으로 나왔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여러 대 지켜온 화롯불을 시집온 며느리 꺼뜨리는 이야기이다. 옛날 불을 매우 귀중하였다. 불을 꺼뜨리는 며느리는 칠칠하지 못한 여자로 여겨 쫓겨나야 하였다. 그런데 시부모의 아량과 며느리의 노력으로 화롯불을 꺼뜨리는 존재가 동자삼이었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웃사람의 아량과 아랫사람의 노력과 협심이 복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효행과 관련되어 아들을 병든 부모에게 삶아 먹인다는 내용의 유형이다. 함께 살던 부모님이 병이 들자 효자 부부가 온갖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 차도가 없게 된다. 그 때 시주 온 스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 서당에 다니오는 아들을 삶아 먹여 부모님의 병이 낫게 되었다. 그런데 뒤에 아들이 다시 와서 확인하여 보니 그 삶은 것이 동자삼이었다는 내용이다. 좀 변화된 형태로는 시신의 다리를 떼고 올 때, 뒤에서 ‘내 다리를 달라’며 쫓아오는데 그 다

리를 삶아 부모님께 먹이고 보니 산삼이었다는 내용도 있다.

넷째는 이춘보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가난한 서민인 이춘보는 산삼을 얻게 되지만 알지 못하고 지붕에 얻어 놓게 된다. 세금을 받으러 왔던 사람이 고삼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얻어다가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였다. 이춘보는 서울에 갔다 돌아오던 도중에 주막에서 시신을 치워주고 짐을 살펴보고서 자기 캔 것이 들어 있음을 보고 귀중한 것으로 여겨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대원군에게 산삼을 받치게 된다. 대원군은 그의 순박함을 알고 살려주게 되었는데, 어떠한 산삼을 캔 덕분에 양반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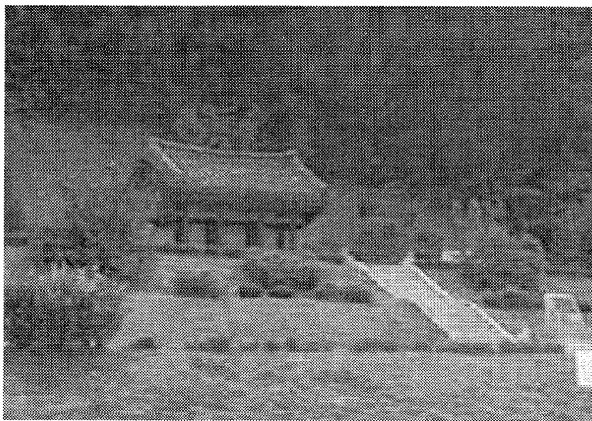
다섯째로는 정성을 드려 인삼을 얻기도 하고 욕심을 부려 잃기도 하였다는 내용이다. 산삼은 정성을 드려야 캐 수 있다. 그래서 정성을 드리는데, 설화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산에 갈 때 가장 꺼려하는 개를 잡아 정성을 드리고 산삼을 캐는가. 산삼을 발견하였지만 계시를 저버리고 가장 큰 것부터 캐려다가 모두 잃어버렸다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적덕을 하여 산삼을 얻었다는 분헌설화 <비부>가 구비전설화한 자료도 있다.

이밖에도 산삼에 관한 내용이 설화에서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는 자료들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른 유형의 설화들이 인삼과 연계되면서 설화화 중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나무꾼과 선녀, 인물구환 유형의 설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금산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설화들도 위와 같은 내용들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금산 지역의 설화가 다른 지역의 자료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삼재배에 관한 설화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부터 인삼에 관련된 축제가 진행되어 왔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금산을 인삼재배의 종주지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금산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인삼 관련 설화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인삼이 왜 금산에서 재배되었을까

1) 진악산 주변의 지명과 유래(인삼각의 유래)



그래 인삼각이 왜 여 성
곡리에, 저 진악산 밑에 가
인삼각이 섰냐면, 개삼터
란 디가 내내 거가 있어.
거기서 강 태사가 제일 첫
번에 인삼을 재배했다는
디다가, 인삼각 세운 디가
거기여. 그래서 인삼각을

거기다 세우고, 오늘날 인삼제를 시작한 지가 지금 15회, 6회냐 그렇
게 될 꺼여.

남이면 성곡리 노인정, 1996. 11. 9., 김만식(79, 남)

2) 금산에 인삼이 퍼진 유래

옛날에 진악산(進樂山)에서 가난한 한 농부들이 사느디, 이게 산에
가나가 보니까 이게 빨간 딸이 있어, 딸. [조사자 : 딸이요?] 응.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인삼이다 그거여. 옛날에 가져다가 심었어, 약

초로. 약초란 말을 듣고 심었는디, 그 놈을 사무 캐서 시험해 보니까 약이 좋거든. 먹어 보니께. 그래 갖구 이게 모두 퍼졌다.

이게 금산 진악산이란 겨.(대문 너머 산을 가리키며) [조사자2 : 진악산이요?] 응. [청중 : 금산의 진악산이라.] 진악산. 그래서 금산 삼이 이게 유명해 졌는 게 벼. 난 그 전설 밖에는 못 들었어.

남일면 상동 2구 자택, 1996. 11. 9., 서문 천(80, 남)

3) 효자 강 처사(금산에 인삼이 퍼진 유래)

금산에 와 보면 남쪽 방향으로 큰 산덩어리 보이는 거 봤어? [조사자 : 예.] 그 산 이름이 진악산이여. 진악산 밑에 동쪽, 진악산 동쪽 편 아랫마을 거가 무슨 동네냐 하면 성곡리라고 하. 성곡. 별 성(星)자, 곡할 곡(哭) 골짜기라서 곡짜여. 그래서 성곡리여.

그 동네 거기에서 옛날에 제비 강(姜)자 강씨가 살고 있었어. 그 강씨가 선비가 살고 있었어. 강 처사. 아주 선비 고중에서도 더 유명한 저 어떤 선생님이 계셨던 게 벼. 처사라고 강 처사.

아! 어머니가 병으로 인해서 누워 계시는디, 차도가 자꾸 안 되야. 이 약 저 약을 맥여 봐도 말이지 차도가 없어. 그래서 쯤 마지막으로 산에서 큰 산삼을 여하튼 맥여 보야 데겠는데. 아이 저 산삼을 썰러고 진악산을, 메칠을 삼을 발견하라고 돌아 댕기는데, 그래서 발견을 못하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라고 어머니는 병이 차도가 안 낫고 이라고. 그래 어머니 병환 때 문에 눈물을 흘리고 걱정을 하고 이러고 있는디. 하룻밤에는 말이여, 눈을 붙이고 잠을 자는 디 꿈이 꿰지거든. 꿈에 말이여 산신령이 나타나서, 어 산신령이 텅하니 나타나 가지고설래면은 일러 주시더라.

“네 어머니가 저렇게 위독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잠



만 자고 있느냐.”

하면서 말이지. 그 진악산 중턱에 어데 라고 일러주면서 말이지,

“워데 가서 있으면, 가면 하여튼 니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산삼이 눈에 뵈는 것이다.”

인제 탁 잠을 깨고 보니까 꿈이었거든. 그래가지고서 두 손을 합장 하고선 말이지.

“하느님, 땅님, 조상님, 참말로 이런 꿈이 꾸지게 해주셨나.”

말이지. 하여튼 이렇게 혼자 신령님께 빌고 있었어. 그래서 아침이 된 해가지고서, 인제 밥을 한 숟가락 먹었을 테지. 그래서 이렇게 이리저리 텅텅 가다 보니까, 숲을 헤매 땀겨 보니까 말여. 인삼 말이지, 인삼 그림을 보면 빨갭게 딸(열매·씨앗)이 있지. 인삼 딸이 있지.

아! 그것이 눈에 뵈단 말이어. 강 처사 눈에 산삼을 발견한 거여. 인자 아이구! 이 딸을 한 톨이라도 안 없애고 자~알 싸갖고 가야 된다고 말이지. 요놈을 자알 따서, 그제 무슨 제 수건이다 싸던지 어따 싸던지 자알 간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인자 산에 인자 올라가지고 산삼 같은 거 나타나면 켈라고 호맹이 같은 거 있었을 꺼 아니여. 그놈으로 뿌랭이를 켜어. 그놈을 캐. 가지고설랑 말이지 집으로 내려와 가지고서는 말이어. 그놈을 대려서 맥이고 하니까 말이지 병이 차차 차도가 있었어. 그래서 어머니 병을 낫게 하셨다 이 말이어.

강 처사가 그게 참 효도거든. 그게 효도여. 그래가지고서 금산 인삼 유래가, 강 처사가 어머니 병 고칠라고 산신령의 어떤 꿈의 선물을 해가지고 산에 가서 어떤 산삼을 발견해 가지고서 씨 탄 거, 그때부터 씨를 심기 시작했어. 그 놈이 인제 이삼 년 키워 가지고, 이게 또 딸이 많이 열잖어. 차차 차차 불거가지고서, 그랴 금산 인삼이 이게

퍼진 거여. 인제 강 처사로 인해서.(웃음)

부리면 현내리, 2005. 4. 30., 길기홍(79, 남)

4) 인삼의 발원지

[조사자 : 인삼에 관한 전설 있잖아요?] 그것 또 해줘야지. [청중 :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남 얘기하는 것 그렇게 재밌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금산 인삼이 어디서부터 발생 했나 이걸 먼저 알아야지. [조사자 : 그렇지요. 소중하지요.] 인제 중국산을 들어오고, 외국산 두 들어오고, 쏘련 산도 있고. 있는데, 출전하는 관계를 좀 다르지.

그런데 금산에 가면 진악산이란 데가 있어. 난 금산 사람이래도 아직 진악산 안 가봤어. 남일면 사람 이래두. 그 사람에게 들은 소리인 게. 내가 왜 전설을 얘기하느냐?

내가 이거 농사질라고 태어난 사람도 아녀. 그런디 그 진악산에 갈 적에 아주머니가 기도를 했다, 아들 낳아 달라고. 그 산이 요새는, 신 세대는 그렇게 안할 테지만, 그 전이는 왜 나무두 큰 나무가 있어서 갔다가 절을 하고 그라는데. 날마다 그 물두 떠다놓고 마음 꺼나 절 하고 이렇게 하고 했잖아. 그런데 백일기도를 한다. 인자 하루만 했어도, 그것은 백일이 속달 열흘이여. 기도한게 노인네가 와서,

“뭇들 하느냐?”

[조사자 : 진악산은 그것.] 그러니까 내의 심정 얘기여. 그렇게 해서 땡기면서 들으니까, 진악산이란 것은 애당초는 진악산두 몰랐지.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가 자식을 두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백일기도를 했다.

근데 하루는 늙은이가, 지금은 이렇게 전설의 고향에 보면 왜 수염 많이 난 할아버지가 나오지. 그러면서 해안(하얀) 늙은이가 왔는데,

왔으께 무슨 소원이나 풀
러. [청중 : 여자 애기나
받고.] 여자는 그래, 그 아
들 낳는 게 한이 돼서 절
을 했을 거 아녀. 상각 아
무디 어디 가거라. 근디
나무두 안 하고 허는다.

“아무디루 가거라.”

그 늙은이가 거기 진악
산인가 소개했다는 애기지. 거기서 안면해서

“아무 디는 몇 일 된 걸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삼이라는 것은 가을까지 있는 것이, 삼이라는 것은
가을까지 있는 게 아녀, 이파리 허고 열매고. 그런게 거가 가니깐, 벌
건한 기 잎 있더라. 생전에 못 보던 거여. 그 놈을 뜯으라고 해서 뜯
어왔다는 거여. 그 뿌리를 캐왔으면 괜찮은디. 그런데 저녁에 또 다시
하느님이,

“그것은 안 된다. 후에 있다가 혼자 가 있으라!”

외아들을 삼으라 이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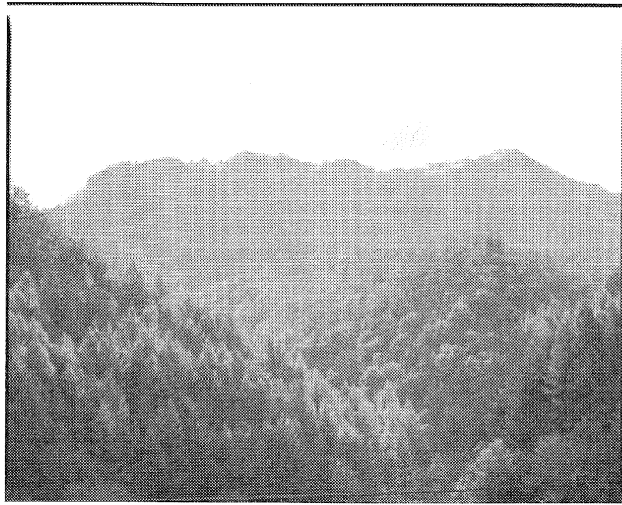
“또 있지를 않냐?”

“알아요.”

그렇게 하더니 반반하더니. 이렇게 해서 다시 먹고 가보니께 참 시
(세) 뿌리 백이 읊더라. 그러니 거그서 반반해서 그 뜯어 왔는데, 참
그냥 벌건 한 걸 뜯어 갖고 왔는데,

“그건 안 된다. 종자를 삼아라.”

이렇게 하면서 뜯어왔어. 그래서 그 이튿날 가본께 하 읊더라. 시
뿌리 백에 읊다는 거. 근데 그 산삼이란 기본은 난 몰라. 근데 산삼은
대가리가 빼쪽한께 이뤘다데. (청중들 대화 생략) 그때부터 캐서 땅이
다 묻었다나. 동국도 짓고.



전설은, 여기서 진악산에서 나오는 거구. [조사자 : 그 진악산이 거기서] 산신령이 왔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하느디, 그 산신령이 와서, 나 산신령 모두 못 했지만, 이렇게 수염 한 사람이,

“너, 이리 와라!”

이렇게 놓고 강께, 빨간 뺨긴 있드랴. 빨간 그것 씨앗 달린 거, 이파리 달리고 약 달린 것, 그때가 7월이랴요. 칠월달이란 그 상처 난 그적인 겨. 그 때 가서 근디,

“너는 그렇게 안 낳느냐?”

그런께루, 또 그 이튿날 가보니께 뿌리는 시 뿌리 뺨에 읊너라는 겨. 그 빨간 걸 다 잘못 따 왔지. 이파리도 읊지 어떻게 알어, 그런게 다 잘못된 것지. 그 뭇 뿌리 갖다, 그래 금산에 진악산의 인삼을 캐나 자기네가 먹고 딸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난 거라 이거여. 그러면 그 아들 낳으면 뭐 할까. 엉 그 여자들 욕심, 응 밤새서 잠 안 자고 서방은 술을 먹고 땡기거니 어찌고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 아들 못 낳은 것 못하고 뭐라고 할까.

[조사자 : 아 얘기해 주세요.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병 환자가 되었던야. 지금 말하자면 중풍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어린 아들이라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병이 났다는 거여. 그렇게 어떡 하냐. 약 먹어서 잘못 됐다고 할 꺼. 별것 다 있어. 근디 이 낭반은 기도만 했어. 산신령님이 줘서 태어난 자식인디 이렇게 아프다냐. 부부간은 또 어떻게 싸웠는가,(웃음) 한 번 생각해 봐. 젊으니까 한 번 해 봐.

“아이 기도해 갖고 저걸 은을라고 했냐.”

할 꺼 아니여. 그래가지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은 겁나게 좋아하게 생겼어. 자네 복이니께, 내 복인께. 부부간이 이렇게.

지. 거기서 애초에 발견돼서 인삼제를 거서 지내. 여기서 떠들긴 엄청 떠들어. 거(그)것도 말하자면 옛날 얘기지. 나도 거짓말 못 하.

누가 산이를, 효자가 산이를 가서 거기서 딸이 열어서, 그때 딸이가 먼(똥)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인삼 딸이를 빨간 거 아니에요. [조사자 : 딸이여?] 인삼 딸, 씨앗. 그 놈을 거기서 채취 해다가 재배를 했다 이렇게 나왔다. 그게 퍼져서 인삼이 약효가, 그것이 금산 인삼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내가 듣는 얘기로는 산신령님이 주신 거지.

[조사자 : 인삼인 지도 모르고 따다가 재배를 한 건가요?] 그렇지. 약효가 있고 뭐하니깐 진학산서. 그러니깐 꼭 거기서 인삼제 지내고 와서. [조사자 : 진학산 산삼이 인삼이 된 거네요?] 말하자면 애초에 거기서 발견된 거지. 그러니깐 인삼은 보한(보종을 낸) 것도 아니고, 금종하는 것이 금산서 나온 삼이기 때문에 금종이고. [조사자 : 금종.] 금산 진학산서 나온 거니깐 금종이지.

그니깐 시발은 거기에서 어떤 그 사람은 그만한 거시기 공을 들였던지 해서, 거시기가 나왔겠지. 애초에 따고 재배 했겠어. 이름도 성도 모르지. 듣기로 거기 진학산서 씨앗이 나왔다 알지. 세부적으로는 내가 파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금성면 상가리 쇠실 자택, 2003. 11. 6., 조휘영(76, 남)

9) 금산에 인삼을 재배하게 된 유래 (2)

[조사자 : 인삼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을까요?] 인삼은, 금산이 여기 개삼터라고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남일리 상곡리(남이면 성곡리)라고 하는 그 강 태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병이 위중하셔서 인자약을 구하러 다니는디 신선이 얘기했다는 것, 어디 거기 가면 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삼을 찾아 어머니 약을 해드려 가지고 어머니 병을 나아지게 해서, 인삼이 여기서 개삼터라고 인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삼의 종자를 받아. 그때부터 어느 신라 시대인가 할튼(하여튼) 그 오랜 적 이야기에요. 할튼 거기서 삼이 퍼진 거예요. 금산이 개삼터가 있어요, 개삼터. 삼을 열었다는 거지, 열 개(開)자 개삼터.

그리고 여기서 인삼 축제를 하거던요. 첫 번이가 제사를 개삼터로 가서 시내는 거예요. 그 진학산 산신령님이 삼을 일러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삼 종주 군이 됐어. 종주 지가 된 거예요. 인삼이 여기 금산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금산 인삼 그러는 거예요.

금성면 상가리 쇠실 자택, 2003. 11. 6., 조휘영(76, 남)

10) 인삼제 유래

[조사자 : 근데요, 저기 인삼 같은 거 설화 있잖아요?] 인삼설화는 이제 금산의 인삼의 종주지다. 그 하는 것은, 뭐 진악산의 강 처사가. 거기에서 그 인삼을 신의 현몽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해서 지방 금산읍에 가면 개삼터라고, 저 남일면 신동린가 거기다 개삼각도 지어놓고.



그래서 매년 인삼제 때 거기 가서 제살 드리고. 거기서 인제 채화한 성화지, 그 놈을 가지고 금산 인삼제를 치르는데, 인삼은 우리나라가 여기 고려 때부터 해온 것만은 사실여.

추부면 자부리 남산마을, 1996. 11. 9., 정해주(70, 남)

5) 인삼의 유래

산삼. [조사자 : 아, 산삼이요?] 진악산에서 강 처사라는 사람이, [청취불량] 강 처사라는 이가 부모가 병이 들었는디 낫을 길이 없고. 산삼이나 낫을까 하는 그런 전설을 하고 있는데. 정성을 들이고 그래갖고 산삼을 구해서루 갖다 맥이니까 나아서 성공을 했다.

그래 그 산삼 열매를 갖다 심귀서 가삼(재배 삼)이 됐다는 거죠. 그 래 가삼이 됐다는 거여.

금산읍 계진리 자택, 2004. 5. 22., 우 할아버지(87, 남)

6) 금산 인삼의 유래

저 앞 관음봉이라는데, 거기서 어떤 가난한 농부가, 어머니가 병이 드셔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벼라별 약을 써도, 써도 도저히 낫지 않는 단 말이지. 그래서 어느 날 그 꿈에, 참 딱 수염을 기른 산신령이 딱 나타나 가지고,

“관음봉 그 굴 앞에 가면은 무슨 이상한 뿌리가 있을 거라.”

그 점지를 해 준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가지고 보니까, 과연 그 특이하게 빨강게 익은 인삼을 발견한 거지. 그 놈을 캐다가 그 어머님한테 다려드렸더니 그냥 그날로 나서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낫다는 하나의 전설 중, 우리 금산 인삼을 대표하는,

[조사자 : 그게 인삼이었어요?] 예. 그 인삼이 예~ 그렇게 효험이 좋다고.

금산읍 양지리 길가, 2006. 5. 5., 황영수(62, 남)

7) 인삼 설화(개삼터 설화)

꿈에 현몽을 해서 산삼이 어디에 났는지 말한 게 산삼이거든. 어디를 가보면 묘한 식물이 있을 텐데, 그것을 따가지고, 말하자면 처음으로 인삼 농사를 재배한 게 200~300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인삼 상자 보면 써 있거든. 그 사람이 그 꿈에 선몽하기를,



“진악산 개삼터에 가볼 것 같으면 거기에 묘한 식물이 있을 것이다. 그 놈을 가지고. [청중 : 빨간 열매 달리고 한 걸.] 그 놈을 가지고서 부귀영화를 누려라.”

하는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그래서 산삼을 거기서부터 채취해 가지고, 금산에 심어가지고 금산이 유명한 삼(인삼) 동네가 된 거야.

[청중 : 비실 가면 산신령 모시는 전각이 있어.] 그렇지. 그게 개삼각이여, 열 개(開)자 인삼 삼(蔘)자고 집 각(閣)자 해가지고 개삼각이여, 거기.

금산을 하옥 1구 자택, 2003. 12. 7., 전해근(?), 남)

8) 금산에 인삼을 재배하게 된 유래 (1)

[조사자 : 인삼에 대해 내려오는 이야기 있을 거 같은데.] 인삼 이야기 하자면, 인삼제 때 안 와 봤어?

여기 진악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읍에서 고기서 인삼 씨를 구했다

11) 금산에 인삼을 심게 된 원인

금산 인삼이 적은데 무게 무겁다. [조사자 : 인삼을 옛날 조상들이 경작했을 꺼 아닙니까.] [청중2 :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조사자 : 뭐 그게 하게 된 동기 같은 것 이렇게 내려오는 유래 같은 것 읊어요? 여기서 어떻게.] [조사자 2 : 어떤 할아버지가 인삼 키우고 막 그랬단 것도 좋고요.]

인자 그것을 인자 진악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발생되어 가지고, 금산 진악산이 먼저 하나 가다. [조사자 1 : 진악산요?] 진악산이라고 있어. 그 산에서 말하자면 첫 번이는 산에서 산심이지. 그것을 인자 대부분 인삼을 개발해 가지고 있는디. [청중 : 그래서 금산군은 인삼제 지내잖아.]

진산면 읍내리 노인정, 1992. 7. 21., 박기수(70, 남)

12) 금산에 인삼이 유명한 이유

[조사자 : 할아버지? 어떻게 금산에 인삼으로 유명하게 된 겁니까?] 금산 인삼이라는 것은 진악산서 할아버지가 거기서 사는데, 밤이 자다가 꿈을 꾸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인자 편찮으신데, 여기서 듣기는 그러. 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신디, 그 산골랑 있으면서 꿈을 꾸니까.

“너는 어느 산이 가면, 그 약 뿌리가 있다.”

캐가지고서 그 놈을 삶아서 해주다 보니까 이게 효력이 많거든. 그 래 결국 인삼인지도 몰랐지. 그런 적에 캐 와서 그놈 해 보니까.

복수면 곡남리 자택, 1998. 11. 7., 제보자 3(70대, 남)

13) 풀고개의 석장

나무가 숲을 이루고 산새와 들새 소리만 요란스럽게 들리는 고개 아래에 칠십이 넘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식 하나 없었으므로 늙도록 일을 해야만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있어서 날이 밝으면 이른 새벽부터 일을 했다. 다행히도 산에는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가 많아 노파는 산을 헤매어 나무 열매를 따왔으며 산나물도 캐러 다녔고, 노부는 들을 태우고 밭을 만들어 곡식을 가꾸는가 하면 강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연명을 하고 했다.



그러니까 세월로 따지면 삼국 이전 이야기다. 산이 깊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을 때라 일 년 열두 달 사람 구경을 못하고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루는 노파가 산으로 나무 열매를 따러 갔다가 허기져 우는 것 같은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줍게 되었다. 처음엔 호랑이 새끼인지 모르고, 바구니에 담은 노파는 필경 호랑이 새끼가 배고파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데리고 와 먹을 것을 주었다. 호랑이 새끼는 허기진 판국이라 주는 대로 음식을 모두 먹어 치웠으며 그날부터 노부부는 집 옆에 나무망을 쳐놓고 호랑이 새끼를 기르게 되었다.

원래가 인심이 좋은 노부부라 호랑이 새끼에게도 최선을 다했다. 마치 자식처럼 사랑했으며 한가할 때는 호랑이 새끼와 노는 것이 즐거움이기도 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호랑이 새끼를 기르기 시작한 지도 다섯 달이 지났다. 그 동안 큰 짐승이라고는 멧돼지 정도만 흔히 볼 수 있었고 호랑이란 동물은 산속에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하루는 새벽에 이상한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어 보고는 노부부가 깜짝 놀랐다. 호랑이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가두어 놓은 나무우리를 두 마리의 호랑이가 빙빙 돌면서 나무우리를 헛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저게 바로 호랑이로구나.’

그들은 문구멍 사이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속삭였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호랑이들이 사라졌을 때 노부부는 나무우리 가까이 가서 더욱 맛있는 음식을 듬뿍 먹였으며 이제는 친숙해서 나무우리로 뛰어 오르는 호랑이 새끼와 더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일을 하고 밤이 되어 깊은 잠에 잠기게 되었다. 그런데 밤에 그들은 똑같이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가지고선.

“나는 진악산의 산신이다. 네가 그 동안 나의 사자인 호랑이의 아들을 키워준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노라. 더구나 산에서 방황하는 호랑이의 아들을 발견하고 키워주지 않았다면 그 놈은 굶어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저녁 지금쯤 네가 키우던 호랑이 아들은 부모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고 그 우리는 텅 비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섭섭해 하지 마라. 너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할 터인즉 내일 저녁 밤이 어두워지면 진악산 동쪽 봉우리 아래에 굴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렸다. 내 거기서 너를 만나서 이야기 할 터이다.”

라고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꿈에 산신령이 사라지자 노부는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앉았다. 노파도 잠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여보! 나 산신령 꿈꾸었어요.”

하고 노부의 눈치를 살폈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꿈을 꾸는 노부부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횃불을 밝히고 나무우리로 가봤다. 거기엔

꼭 있어야 할 호랑이 새끼가 없으며 우리의 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다.

노부부는 이튿날 저녁 진안산의 산신령을 만나 보기로 하고 일찍부터 여장을 차린 다음 집을 출발하여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진악산 동쪽 물이 흐르는 굴 가까이 도착하였을 때는 밤이 으스스해서이었다. 그들은 굴 가까이 가 쫓그리고 앉아서 산신령을 기다리는데,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는 소리가 한참 동인 들리더니 그들 앞에 하얀 옷을 입고 백발의 수염이 긴 산신령이 호랑이 여러 마리를 데리고 나타났다.

“잘들 왔노라. 아내까지 데리고 오다니…。 부부의 금슬이 황금과 같도다. 내 여기까지 그대를 부른 까닭은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가뭄만 들면 호랑이를 잡아서 죽이고 그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지라 진악산 호랑이 씨가 마를 지경이다. 이 굴 속엔 천년이 지나도록 승천을 못하는 이무기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여기에 제사를 지내면 이 아무기가 조화를 부려 비를 뿌리게 한다나…。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걸 관습처럼 하고 있단 말이다. 내 부탁하건대 네가 내려가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굴속에 있는 이무기 제사를 지내지 말고 산신을 제사 지내라 일러라.”

“네…”

그는 위엄에 놀래어 더욱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네 앞에 있는 풀을 잘 보아라. 그 풀은 산삼이란 건데 캐다가 여러 갈래로 심어도 자생을 하는 산삼이니라. 산삼은 너도 알다시피 만병에 통치라, 그걸 잘 가꾸면 네 여생은 걱정이 없으리라. 호랑이 새끼를 길러준 보답이다.”

“신령님, 신령님. 감사하옵니다.”

“또 한 가지 그 산삼을 갈아 심은 자리에 석장을 세워라. 그러면 산삼 밭을 어지럽히는 짐승들을 호랑이들이 보호해 주리라. 이게 보답이니라.”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가 머리를 숙이자 처음처럼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호랑이 울음과 함께 산신령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날 산에서 내려온 노부부는 그 이튿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산삼을 한 지게 가득 캐어들고 내려왔다. 그리고 산을 불대워 밭을 만듦과 거기다가 산신령이 말한 대로 갈아서 심었다. 그리고 산삼 밭 위쪽에 큰 돌을 세워 석장이라 했더니 산삼 밭엔 짐승 하나, 새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으며 가끔 밭에 나가면 호랑이들이 교대로 산삼 밭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산삼은 곱게 자랐다. 이웃에서 병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에게 산삼 뿌리 하나를 준 것이 바로 병이 완쾌해지자 그 소문을 전국에 퍼져 나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산삼을 사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람의 인명을 구출하는 신기한 뿌리라 하여 인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인삼을 가꾸는 노부부는 백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하는데 인삼뿌리의 효험이라 전한다.

금산군 남일면 풀고개에 가면 몇 해 전까지도 돌 석장이 서 있었다 한다. 여기가 처음으로 인삼이 가꾸어진 곳이라 전한다.

안용산, 〈설화속의 금산〉 pp.186-189에 재인용

14) 개삼터

지금부터 약 1,500여 년 전 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모친마저 병이 들어 자리에 몸져눕자, 진악산 관음굴에서 정성을 들여 모친의 쾌유를 빌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꿈속에서 산신령이 현몽하였다.

“관음불봉 암벽에 가면 빨 간 열매 3개 달린 풀이 있을 것이니 그

뿌리를 달아드려라.”

강씨는 계시가 있어, 그곳을 찾아가니 과연 그러한 풀이 있어 뿌리를 달여 드리니 모친의 병환은 완쾌되었다. 그 씨앗을 남이면 성곡리 개안이 부락에 심어 재배하기 시작하니 인위적으로 처음 재배하게 된 것이라 한다.

안용산, <설화속의 금산> pp.228에 재인용

15) 산삼을 캔 효녀

옛날에 어느 산골에 홀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눕고 있어서 그 어린 딸이 모든 일을 하였지.

그 어린 딸은 집 근처에 조그맣게 밭을 일구고, 그 밭에 곡식을 심어 양식으로 하곤 했지. 그 어린 딸은 날마다 밭에 나가 힘들게 일을 하였고, 밭일을 끝내게 되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거기다가 약초를 캐곤 했지. 근데 항상 그 약초는 어머니에게 달여 먹였지. 그 어린 딸은 약초를 캐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르는 일이 없었지.

그런데 이걸 어째, 그 어린 딸의 어머니는 병이 점점 더해 가기만 하는 거. 그 어미가 병석에 누운 지도 어언 삼 년이 되었대. 그래서 그 소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효녀인 어린 딸은 안절부절 못 했지. 그 어린 딸은 더 좋은 약초를 캐기 위해 밭일도 잊어버리고 산에서만 살았는데.

어느 날, 어린 딸은 다른 멀리 있는 깊은 산에 가서 약초를 찾아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어. 거의 샅샅이 산을 뒤졌지만, 그래도 여태 좋다는 약초를 아직까지 찾아보지를 못 했던 거.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금시에 소나

기가 쏟아질 것만 같은 날씨로 변하는 거여. 어린 딸은 정말 비를 맞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그 어린 딸은 커다란 바위 밑으로 가서 비도 피할 겸 쉬기로 했지. 그런데 많이 피곤했는지 그 어린 딸은 그 딱딱한 바위라도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고 말았지.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백발의 노인이 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어린 딸에게,

“빨리 일어나 밭밀을 보라.”

말을 하는 거. 그 백발의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어린 딸은 벌떡 일어났지. 글썽 어린 딸은 잠깐 눈을 붙인 새에 꿈을 꾸는 거지. 그런데 참말로 이상하게도 하늘에 시커멓게 몰려 왔던 먹구름들은 어느 새 없어지고 저녁 햇살이 숲속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게 아니겠어.

이상하다 싶어서 그 어린 딸은 꿈속에서 들은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나서 밭밀을 살펴보았지. 그랬더니 진짜 거기 돌과 돌 사이에 아주 조그맣게 지금껏 구경도 하지 못 했던 풀 한 포기나 빠죽이 나 있는 게 아닌감? 그 어린 딸은 기이한 약초가 틀림없다는 생각에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그 풀을 캐냈지. 그게 꼭 커다란 무우(무) 같이 생기긴 생겼는데, 밑 등이 몇 갈래로 갈려진 게 무우는 아닌 이상한 식물이었었는데, 더 특이한 건 무우 치고는 잔뿌리가 많이 달려 있는 거. 그 식물은 무엇이었냐면 말이어. 아가씨들도 알지? 산삼이었던 거.

어린 딸은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와서 지 어미에게 산삼을 달여서 드렸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병이 정

말 씻은 듯이 나았고, 기운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괜히 사람들이 산삼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벼. 나도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산삼인데 말이어.

이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져나갔지.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산에 올라 산삼을 캐려 들었지. 욕심이 많은 사람은 멀리서 까지도 찾아왔대. 하지만 산삼을 찾아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대. 그래서 사

람들은 그냥 허탕만 치고 온 거지 뭐. 원래 산삼은 마음씨 착한 사람
눈에만 띠(띠)이는 건데 말이여

복수면 백암2리 노인정, 2006. 5. 5., 박순미(79, 여)

